

## 『黃帝內經』의 肉 개념과 관련 用語에 대한 研究

<sup>1</sup>慶熙大學校 一般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 <sup>2</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sup>3</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解剖學教室

楊榮圭<sup>1, 2</sup> · 丁赫相<sup>3</sup> · 白裕相<sup>2 \*</sup>

### A Study on the Meaning of 'Yuk(肉)' and Relevant Terminologies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Yang Young-kyu<sup>1, 2</sup> · Jung Hyuk-sang<sup>3</sup> · Baik You-sang<sup>2 \*</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sup>2</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3</sup>Dept. of Korean Medical Anatom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there are many uncertain terms to express body structures, for example, Yuk(肉, fle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meaning of Yuk(肉, flesh) and relevant terminologies.

**Methods** : To define the meaning and origin of Yuk(肉) character and relevant terminologies, examples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Seolmunhaeja*(說文解字) and other important references are investigated.

**Results** : Yuk(肉) character has etymologically meant meat, and afterwards it has got meaning of flesh. In the main two terms derived from Yuk, Giyuk(肌肉) means flesh, and Bunyuk(分肉) means muscles in anatomical knowledges. Also Yuk has been the most important etymological word that means body, among the five parts of body[五體], Geun(筋, tendon and ligament), Maek(脈, blood vessel), Yuk(肉, flesh), Pi(皮, skin) and Gol(骨, bone) to contribute to making basic meanings of those characters.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definitions of many Korean medical terminologies especially in anatomical knowledges to be helpful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terminologies.

**Key Words** :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atomy, terminology, Yuk(肉), the five parts of body(五體)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Received(27 April 2015), Revised(11 May 2015),  
Accepted(12 May 2015).

## I. 緒 論

### 1.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의식

『黃帝內經』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 文字의 의미나 용법이 『黃帝內經』의 편별 성립 시기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경우가 많아서 用語(terminology)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用語의 명확한 定義는 한 의학 문헌의 기초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한 의학 用語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sup>1)</sup> 대부분 논문들의 주제가 用語의 계통이나 비교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인체 구조를 지칭하는 用語들의 경우 현대 의학의 해부학적 지식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대상은 동일하지만 한의학 특유의 인체관에 영향을 받아 서로 개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黃帝內經』에서 身體를 지칭하는 기초적인 用語인 筋, 脈, 肉, 皮, 骨의 五體<sup>2)</sup> 가운데 ‘肉’의 용

례를 살펴보고 그 개념과 관련 용어들을 고찰해 보았다.

五體 가운데 肉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현대의 해부학 用語 중 하나인 筋肉<sup>3)</sup>과 같은 표현은 筋과 肉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둘째, 肉은 筋과 더불어 피나 뼈에 비하여 공간적인 경계가 모호하여 직관적, 시각적 정보를 통해 인지 및 구별하기 힘든데다가, 肌肉과 같이 유사한 用語로 인해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肉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하여 筋과 같이 기타 해부학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개념들과의 관계도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黃帝內經』 五體에 대한 해부학적 고증의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서는 朴泰浩의 ‘人體部位別 名稱에 대한 東西醫學的 比較研究’<sup>4)</sup>와 孫旻成, 吳旼錫의 ‘『黃帝內經素問』에 수록된 筋과 骨의 文獻的 考察’<sup>5)</sup>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肉과 筋의 개념에 대하여 해부학의 muscle, tendon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서로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었다<sup>6)</sup>. 국외 연구로는 翁文水の ‘試探『內經』分肉與分肉之間’<sup>7)</sup>, 嚴健民的 ‘膈肉, 肉膈, 分肉之間解析’<sup>8)</sup>, 張登本, 孫理軍의 ‘『黃帝

皮, 骨 등을 말한다.

1) 用語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육상원의 『黃帝內經』의 瘰字에 대한 고찰(대한한의학회지. 2014. 27(1). pp.89-98), 심현아 외 3인의 『黃帝內經』中 腑字 意味 研究(대한한의학회지. 2013. 26(1). pp.47-54), 김정수 외 2인의 『營字와 榮字의 用例 分析 研究』(대한한의학회지. 2010. 23(2). pp.125-139) 등의 논문들이 있으며, 用語의 분류와 비교 등 체계에 관한 연구는 정두영의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문장 성분 분석을 중심으로』(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2009), 박찬영의 『鍼灸甲乙經』의 古代醫學用語에 관한 系統的 研究-온톨로지(Ontology)를 이용하여(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2013), 신재혁의 『本草 效能 主治 用語에 對한 研究』(대한한의학회지. 2010. 23(2). pp.107-118), 김민건의 『小兒藥語直訣』과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비교에 관한 연구(대한한의학회지. 2010년. 23(1). pp.59-79) 등이 있다. 用語의 번역에 관련된 연구로는 신선미, 강구, 백진웅의 『東醫壽世保元.性命論』의 用語 定義 및 英譯 研究(대한한의학회지. 2011. 24(4). pp.69-101) 등이 있으며, 用語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이병욱 외 2인의 ‘한의학 용어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고전원문 제공 서비스에 관한 연구’(대한한의학회지. 2009. 22(4). pp.167-176), 감상균 외 4인의 ‘온라인 한의학 용어 사전 시스템 구축’(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 18(1). pp.45-52) 등이 있다.

2) 五臟六腑 이외에 인체 구조를 구성하는 5가지 筋, 脈, 肉,

3) 1774년 일본 최초의 서양해부학서의 번역본인 『解體新書』(독일인 J. Kulmus의 네덜란드어 해부서인 Anatomische Tabelle를 번역한 것)를 필두로 서양의학에 대한 의학용어가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용어 가운데에는 筋肉뿐만 아니라 筋膜, 筋腹과 같은 단어들도 있는데, 약 1906년 이후로 일본으로부터 그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연구는 김경호의 ‘근대 의학 용어에 대한 고찰-번역 의학서를 중심으로’(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4. 4. pp.9-12)에 상세하다.

4) 朴泰浩. 人體部位別 名稱에 대한 東西醫學的 比較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3.

5) 孫旻成, 吳旼錫. 『黃帝內經素問』에 수록된 筋과 骨의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8. 7. pp.853-863.

6) 朴泰浩. 人體部位別 名稱에 대한 東西醫學的 比較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3. pp.76-81, p.116.

7) 翁文水. 試探『內經』分肉與分肉之間. 遙寧中醫雜誌. 1996. 23(2). p.60.

內經』中的解剖學知識及其意義<sup>9)</sup> 등이 있으나 해부학적인 개념을 고증하기보다는 문자적 의미를 비교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黃帝內經』에서 肉이 사용된 용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肉과 관련된 신체 부위 표현에 대하여 역대 주가들의 해석을 검토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이다. 다음으로 『說文解字注』 및 여러 辭典에 나오는 五體의 의미를 검토하여 앞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종합하여 皮, 肉, 脈, 筋, 骨의 공간적인 연계와 구성에 대한 모식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선 『黃帝內經』에 나오는 ‘肉’字的 총 368회의 用例에 대하여 대략적인 의미 고찰과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肉’字가 들어가는 用語 가운데 신체 부위를 지칭하되 역대 주가들의 해석이 분분한 것들을 선별하여 그 개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說文解字注』<sup>10)</sup>, 『東亞漢韓大辭典』<sup>11)</sup>, 『東洋醫學大辭典』<sup>12)</sup> 등에 나오는 五體의 의미 및 『黃帝內經』의 대표적 용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皮, 肉, 脈, 筋, 骨 등 五體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모식도를 제시해 보았다.

# II. 本 論

## 1. 肉과 肌의 기본적 의미

‘肉’과 함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肌’의 기본적인 의미를 『說文解字注』<sup>13)</sup>, 『東亞漢韓大辭典』, 『東洋醫學大辭典』 등의 설명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肉

#### ① 『說文解字』

肉：藏肉。象形。凡肉之屬皆从肉。<sup>14)</sup>

‘肉’은 크게 자른 살코기다. 상형이다. 肉부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肉의 의미를 따른다.<sup>15)</sup>

藏肉。下文曰藏，大臠也，謂鳥獸之肉。說文之例，先人後物，何以先言肉也。曰以爲部首，不得不首言之也。生民之初，食鳥獸之肉，故肉字取古，而製人體之字。用肉爲偏旁，是亦假借也。人曰肌，鳥獸曰肉，此其分別也。引伸爲爾雅肉好，樂記廉肉字。(說文解字注)<sup>16)</sup>

(‘肉’부) 아래 부속자에서 ‘齒’는 “크게 자른 덩어리 고기[大臠]이다.”라고 하였다. ‘肉’은 새나 짐승의 고기를 말한다. 『설문』의 일반적인 예는 사람에 대한 글자를 앞에 두고 물건에 대한 글자는 뒤에 둔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짐승의 살코기[肉]에 대하여 우선 먼저 설명하였는가? 그것은 ‘肉’을 부수자로 삼았으므로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처음 살아갈 때부터 짐승의 고기를 먹었으므로 ‘肉’자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에 관계되는 글자를 만들게 되면서 ‘肉’으로 편방을 썼으니 이는 또한 가차다. 사람의 살은 ‘肌’라 하고 짐승의 살은 ‘肉’이라 하는데 이는 분별한 것이다.引申되어 『爾雅』의 ‘肉好’라고 할 때의 ‘肉’, 『禮記·樂記』의 ‘廉肉’이라고 할 때의 ‘肉’의 의미 쓰인다.<sup>17)</sup>

#### ② 『東亞漢韓大辭典』

肉：① 고기 육 ② 육 둘레 유 ③ 살 유

① 1 고기. ② 배어 낸 고기, 고깃덩이. [禮記] 觴酒豆肉. ③ 동물의 살. [管子] 五藏已具，而後生肉. ④ 과실·채소 등의 겹데기에 싸인 연한 부분.

8) 嚴健民. 胭肉, 肉腠, 分肉之間解析. 中醫文獻雜誌. 2004. 1. pp.16-18.

9) 張登本, 孫理軍. 黃帝內經中的解剖學知識及其意義. 河南中醫. 2006. 26(2). pp.1-5.

10) 說文解字注. 漢典. <http://www.zdic.net>

11) 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1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13) 『說文解字』는 後漢의 許慎이 편찬하였고, 청대에 段玉裁가 이에 주석을 가하여 『說文解字注』를 저술하였다.

14) 說文解字. 漢典. <http://www.zdic.net>

15) 嚴正善. 說文解字주부수지역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7. pp.175-176.

16) 說文解字注. 漢典. <http://www.zdic.net>

17) 嚴正善. 說文解字주부수지역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7. p.176.

[蔡邕·爲陳留縣上孝子狀] 嚼棗肉以哺之. ㉔ 몸, 육체. [荀子] 治古無肉刑. 2 피부. [杜甫·試] 紅顏白面花映肉. 3 살이 붙다, 살이 오르다. [春秋左氏傳] 生死而肉骨也. ...중략... 7 살찌다. [禮記] 使其曲直繁瘠廉肉節奏. 8 두텁다, 굵다. [禮記] 寬裕肉好. ㉕ 9 살, 근육. [周禮] 其民豐肉而瘠.<sup>18)</sup>

### ③ 『東洋醫學大辭典』

육(肉) : 1. 肌肉. 2. 살찐 사람의 유형(類型). <<영추(靈樞)>> <위기실상(衛氣失常)>에 「피육(皮肉)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자(者)는 肉입니다.(皮肉不相離者, 肉.)」라고 하였다. ㉖ 육인(肉人).<sup>19)</sup>

## 2) 肌

### ① 『說文解字』

肌 : 肉也. 从肉几聲. 居夷切.<sup>20)</sup>

肉也. 从肉, 几聲. 居夷切. 十五部.(說文解字注)<sup>21)</sup>  
'肉'이다. 肉의 의미를 따르고 几로 소리낸다. 발음은 居와 夷의 반절이다.

### ② 『東亞漢韓大辭典』

肌 : ① 살 기 ② 몸 기. ① 1 살, 근육. [史記] 割皮解肌. 2 피부. [蘇軾·詩] 洗盡鉛華見雪肌. ② 3 몸, 신체.<sup>22)</sup>

### ③ 『東洋醫學大辭典』

기(肌) : 肌肉. ㉗ 肉.<sup>23)</sup>

## 3) 考察

『說文解字』와 『漢韓大辭典』을 참고하면 '肉'의 문자적 의미 자체는 '고기덩어리'를 크게 넘어서지 않

는다. 段玉裁<sup>24)</sup>의 『說文解字注』에서 “『설문』의 일반적인 예는 사람에 대한 글자를 앞에 두고 물건에 대한 글자는 뒤에 둔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짐승의 살코기[肉]에 대하여 우선 먼저 설명하였는가? 그것은 '肉'을 부수자로 삼았으므로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처음 살아갈 때부터 짐승의 고기를 먹었으므로 '肉'자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에 관계되는 글자를 만들게 되면서 '肉'으로 편방을 썼으니 이는 또한 가차다.”라고 하였고, “사람의 살은 '肌'라 하고 짐승의 살은 '肉'이라 하는데 이는 분별한 것이다.”라고 하여 肌와 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肌는 肉(고기육)과 几(안식 궤)를 합한 글자로 문자적으로는 '살' 이외에 다른 뜻은 없는데, 肉을 假借로 삼아 사람의 살을 표현했다는 설이 의미가 있다. 肉이 '먹기 좋게 해체해 놓은 고기'의 뜻이 강하다면, 반면에 肌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있는 해체하기 전의 '모양과 기능이 잘 잡힌 살아있는 살'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2. 『黃帝內經』의 肉字 용례에 대한 분석

### 1) 肉의 용례 분류

『黃帝內經』에서의 '肉'의 용례는 총 368회 나오며 4개의 대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표현, 병태 표현, 치료와 진단 관련 표현, 음식과 관련된 표현 등이다. 용례의 빈도수를 보면, 신체표현이 약 301회, 병태 표현이 55회, 치료 표현이 29회, 음식 표현이 19회로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은 다시 肉과 관련된 일반적인 구조물을 지칭하는 경우, 皮·脈·筋·骨 등 다른 구조물과 함께 표현된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기타 신체 부위 묘사 및 체형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등으로 나누어진다.

18)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456.

1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6.

20) 說文解字. 漢典. <http://www.zdic.net>

21) 說文解字注. 漢典. <http://www.zdic.net>

22)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457.

2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2).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179.

24) 청대 江蘇 金壇 사람으로 자는 若膺 또는 懋堂이다. 說文學의 대가로서 『說文解字』에 대한 주석 30권을 저술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 단옥재 [段玉裁] (중국역대인명사전, 2010.1.20, 이희문화사)

## 2)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표현

### ① ‘肉’과 관련된 일반적인 구조물을 지칭하는 경우

肉과 관련된 일반적인 구조물을 지칭하는 표현들의 경우 用語가 간략하고 지칭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현재 『黃帝內經』의 用語 연구에 있어서 가장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肌肉’부터 ‘육주(肉腠)’, ‘육리(肉理)’, ‘분육(分肉)’, ‘육주(肉柱, 즉 肉有柱, 肉之柱)’, ‘육절(肉節)’ 등이 아직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用語들이다. 본 분류에 해당하는 用語들을 본문의 후반부에서 제반 용례와 주가들의 해석, 각종 사전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② 皮·脈·筋·骨 등 다른 구조물과 함께 표현된 경우

이 분류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대체로 지칭하는 것이 명료하여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일부 ‘形肉’과 같은 표현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形’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함의를 고려하여 볼 때, 이때의 ‘肉’은 五體의 皮·肉·筋·骨·脈을 대표하는 글자로 해석하여 ‘形體’의 다른 표현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膚’라는 글자를 ‘皮’와 어떻게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하는가의 연구도 필요하다.

### ③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본 분류의 用語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체에서 쉽게 식별이 가능한 표현들이다. 다만 ‘肉里之脈’과 같은 경우는 생소한 ‘脈’의 이름으로 『黃帝內經』 중에서도 『素問刺腰痛』에서만 두 번 언급되고 있으며 제가들의 주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膝筋肉分間’이나 ‘膝前骨肉分間’과 같은 표현의 경우는 제가들의 주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세한 검토를 통해 특정 부위로 한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 ④ 기타 신체 부위 묘사 및 체형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본 분류의 표현들은 ‘肉’이 일종의 수사로 쓰인

경우이다. ‘谷’이나 ‘谿’, 또는 肥人의 3개 有形인 ‘肉人’을 설명하기 위해 쓰였다. 用語가 지칭하는 바와 해석은 대체로 명확하다.

### 3) 병태 관련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병태 표현에 관련된 경우 총 사용 빈도는 55회 정도로 전체 368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37종이나 되는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며 임상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병태 표현의 경우 신체 부위 지칭 用語 연구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를 요한다.

### 4) 치료 및 진단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본 분류의 표현 같은 경우 또한 대체로 명료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는 편이다. 다만 ‘肉度’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음식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본 분류의 표현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運氣篇에 등장하는 표현들도 用語 자체의 의미는 분명하다. 참고로 ‘犬肉’, ‘豕肉’, ‘炙肉’, ‘生肉’ 같은 경우는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약물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볼 필요가 있다.

## 3. ‘肉’字가 포함된 인체 구조 用語의 분석

『黃帝內經』에 나오는 ‘肉’ 범주의 用語 가운데 의미가 명확치 않고 제가들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상 用語의 선별 기준은 제가의 주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현대의 사전이나 자전 등을 참고해도 명료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하였다. 본 기준에 따라 ‘肉’ 범주에 들어가는 16개 用語 중 12개 用語를 선정하였다. 分肉, 肌肉, 肉腠, 肉理, 肉節, 肉肓, 肉膈, 膈肉, 膈肉, 肉之柱, 肉有柱, 肉分 등이 그것이다.

위 用語들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黃帝內經』의 용례와 字義 의미의 해석을 상순위로 두고 楊上

善, 張介賓, 丹波元簡 등 주요 諸家들의 注釋과 後代의 用例은 상대적으로 하순위에 두어 의미를 풀이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黃帝內經』에서의 용례와 제가들의 주석 및 『東洋醫學大辭典』의 풀이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한 한 『黃帝內經』의 용례와 字義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제가들의 주석과 『東洋醫學大辭典』의 풀이를 뒤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12개 用語 高찰의 순서는 用語들의 의미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用語의 개념과 풀이의 논리가 서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의미 상 통합해서 고찰해야 하는 用語는 함께 고찰하였다.

### 1) 分肉(45회)<sup>25)</sup>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分肉이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26)</sup>, 『素問痺論』에서 “衛者水穀之悍氣也. 其脈慄疾滑利, 不能入於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肱膜, 散於胸腹.”이라 하였고, 『靈樞經脈』에서는 “經脈十二者, 伏行分肉之間, 深而不見, 其常見者, 足太陰過於外踝之上, 無所隱故也.”, 『靈樞本藏』에서는 “衛氣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 『靈樞癰疽』에서는 “腸胃受穀, 上焦出氣, 以溫分肉, 而養骨節, 通腠理.”이라 하였다. 또한 『靈樞官鍼』에서는 “先淺刺絕皮, 以出陽邪, 再刺則陰邪出者, 少益深, 絕皮致肌肉, 未入分肉間也, 已入分肉之間, 則穀氣出.”이라 하여 行鍼의 깊이에 있어서 皮膚는 뚫고 肌肉에 이르되 分肉 사이까지 들어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肌肉의 일정한 부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素問氣穴論』에서는 “分肉, 二穴.”이라 하여 氣穴로도 언급되었는데, 王冰은 “足外踝 위 絕骨의 끝에서 同身寸으로 3푼 되는 筋肉分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여 이후의 주가들은 대체로 이를 陽輔穴로 보았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張介賓은 『類經·經絡類·經絡之辨刺診之法』에서 “分肉, 言肉中之分理也.”라고 하였고, 『類經·藏象類·本藏二十五變』에서는 “肉有分理, 故云分肉.”이라고 하였다. 대체로 ‘나누어지는 무늬로서 分理가 명확한 肉’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類經·針刺類刺·刺腰痛』에서는 “肉裏之脈”을 풀이하면서 “肉裏, 謂分肉之裏, 足少陽脈之所行, 陽輔穴也. 又名分肉.”이라 하여 陽輔穴의 異名이 ‘分肉’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王冰의 주를 따른 것이다<sup>27)</sup>.

丹波元簡은 『靈樞識』에서 馬蒔를 인용하여 “馬云 肌肉分肉之辨, 肌肉在皮內肉上, 而分肉則近於骨者也. 分肉有二, 各部在外之肉曰分肉, 其在內近骨之肉與骨根分, 亦曰分肉. 張云大肉深處, 各有分理, 是謂分肉間也.”라고 하여<sup>28)</sup> 肌肉과 分肉을 深淺으로 구별한 후에 다시 分肉을 深淺으로 다시 구별하였는데, 이는 ‘分肉’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분육(分肉)<sup>29)</sup>: 1. 신체부위. ① 지방층과 肌肉이 만나는 부위 또는 기육이 서로 겹친 부위. <영추(靈樞)> <본수(本輸)>에 「봄에 침을 놓을 때는 나맥(絡脈)과 각 형혈(榮穴), 경맥(經脈) 및 分肉 사이에 침을 놓는다.(春取絡脈諸榮大經分肉之間).」라고 하였다. ② 肌肉. 옛사람은 기육의 표층(表層), 즉 피하지방을 백육(白肉)이라 하고, 내층(內層)의 기육 조직(肌肉組織)을 적육(赤肉)이라 하여 나누었다. 기육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육이라고 한다. <영추(靈樞)> <본장(本藏)>에서 「위기(衛氣)는 分肉을 데우고, 피부(皮膚)를 충만(充滿)하게 하며 주리(腠理)를 살찌게 하고, 개합(開闔)을 맡고 있는 것이다.(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者也.)」라고 하였다. 2. 혈자리. ① <소문(素問)> <기혈론(氣穴論)>에서 「부수(府俞)는 72혈로…… 分肉에 2혈이 있다.(府俞七十二穴……分肉二穴.)」라고

25) 괄호 안의 수는 『黃帝內經』에 나오는 용례의 횟수이다.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63, 20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63, 83, 213, 345.

27)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88, 224, 763.

28)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597.

29) 東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4).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312.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교정(新校正)에서는 「《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에 의하면 분육혈(分肉穴)이 없으니, 기록하여 놓은 것을 살펴볼 때 양보혈(陽輔穴)인 것 같다.(按《甲乙經》無分肉穴, 詳處所疑是陽輔.)」라고 하였다. ① 양보(陽輔). ② 양유맥(陽維脈)의 수혈(俞穴)을 말함.

#### ④ 분석 및 고찰

『說文解字』에서 ‘分은 別也(나뉘는 것이다)’, ‘肉은 藏肉(크게 썰어낸 고깃덩어리)’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分肉’을 직역하면 ‘갈래 나뉘어 있는 肉’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說文解字』에서 ‘筋’은 ‘肉之力也(고기의 힘줄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내경의 용례와 주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分肉은 크게 3가지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分肉’이 직역의 의미인 ‘갈래 나뉘어 있는 肉’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靈樞本藏』에서 “衛氣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라고 한 용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의 ‘갈래 나뉘어 있는 肉’이란 muscle에서 육안적으로 결의 무늬가 뚜렷하여 결의 갈래 나뉘는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부위로 한정할 수 있으며<sup>30)</sup>, 근래의 해부학적 用語로는 ‘筋腹, muscle belly’에 가까운 개념이다. 또한 현대 해부학 用語의 ‘muscle’에 가장 부합하는 用語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靈樞官藏』의 “絕皮致肌肉, 未入分肉間也.”의 표현과 같은 경우도 ‘肌肉’이 일반적인 ‘살’의 뜻임을 감안할 때 施鍼을 함에 있어서 ‘鍼이 피부를 뚫고 살로 들어가되 그 가운데 muscle(分肉)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靈樞大惑論』에서 “此人腸胃大而皮膚濕, 而分肉不解焉. …중략… 其腸胃小, 皮膚滑以緩, 分肉解利, 衛氣之留於陽也久, 故少腹焉.”라고 한 것도 이에 가깝다.

둘째는 分肉이 ‘肌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深部に 위치한 갈래가 있는 肉 또는 肉의 모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靈樞識』의 주

석은 分肉이 肌肉보다 深部に 있으며, 分肉이 肌肉과 對句를 이루어 각각 별개의 단위로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의 分肉은 muscle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특히 심부 근육(deep muscle)만을 지칭하는 의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셋째는 『靈樞經脈』에서 “經脈十二者, 伏行分肉之間, 深而不見,”라고 한 것과 같이 分肉이 ‘肉이 갈라진 틈, 또는 몇 개의 肉이 만나는 곳의 사이’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로 실질 조직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 分肉間, 分肉之間은 血脈이 지나가는 공간, 邪氣가 머무는 장소, 치료를 위한 取穴 기준 등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分肉이 단독으로 쓰였더라도 分肉間의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거나 ‘間’자가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이상으로 종합하여 이야기하면 分肉은 직역의 의미인 ‘갈래 나뉘어 있는 肉’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肌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深部に 위치한 갈래가 있는 肉 또는 肉의 모임’이라는 개념과 ‘肉이 갈라진 틈, 또는 몇 개의 肉이 만나는 곳의 사이’의 공간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사용하는 해부학 用語인 ‘근육(筋肉, muscle)’에 실제로 부합하는 用語가 分肉이기 때문에 muscle을 표현하거나 원문 중 肉이 힘살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에 이를 分肉으로 볼 수 있다.

#### ⑤ 현대 用語 및 의미

1. 근복(筋腹, muscle belly), 힘살, 근육
2. 심부 근육, 심부 근육의 근복
3. 근복이나 근육의 나뉘는 틈 또는 그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1. 힘살, 근육 또는, 근복(筋腹), muscle belly
2. 깊은 근육, 심부 근육, deep muscle
3. 근복이나 근육의 나뉘는 틈 또는 그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 between divided muscle belly or space between divided muscle belly

30) 『黃帝內經』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인체 구조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黃帝內經』 저술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인 前漢代의 실제 해부 기록을 『漢書』 卷九十九 『王莽傳』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해부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 2) 肌肉(61회)

肌肉의 경우는 앞에서 肉과 肌로 나누어 간단하게 고찰한 바 있는데, 본 편에서 좀 더 상세한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 ① 『黃帝內經』 안에서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肌肉이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31)</sup>, 『素問·上古天真論』의 “四八, 筋骨隆盛, 肌肉滿壯”, 『素問·藏氣法時論』의 “脾病者, 身重善肌肉痿, 足不收, 行善痠, 脚下痛. 虛則腹滿腸鳴, 飧泄食不化. 取其經, 太陰陽明少陰血者.”, 『素問·太陰陽明論』의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 四支不得稟水穀氣, 氣日以衰, 脈道不利, 筋骨肌肉, 皆無氣以生, 故不用焉.”, 『靈樞·根結』의 “夫王公大人, 血食之君, 身體柔脆, 肌肉軟弱, 血氣慄悍滑利, 其刺之徐疾淺深多少, 可得同之乎.”, 『靈樞·營衛生會』의 “壯者之氣血盛, 其肌肉滑, 氣道通, 營衛之行, 不失其常, 故晝精而夜瞑. 老者之氣血衰, 其肌肉枯, 氣道澀, 五藏之氣相搏, 其營氣衰少, 而衛氣內伐, 故晝不精, 夜不瞑.”, 『靈樞·癰疽』의 “寒氣化爲熱, 熱勝則腐肉, 肉腐則爲膿, 膿不瀉則爛筋, 筋爛則傷骨, 骨傷則髓消, 不當骨空, 不得泄瀉, 血枯虛虛, 則筋骨肌肉不相榮, 經脈敗漏, 薰於五藏, 藏傷故死矣.” 등이 있다. 대체로 전편에서 고루 등장하는 표현이며 의미 자체는 ‘살’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그렇지만 ‘肌肉’과 관련된 肉이나 分肉, 大肉, 臘肉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肌肉의 구체적인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楊上善은 『太素·三刺』에서 “皮爲陽分也, 肌肉爲陰分也.”라고 하여 皮와 肌肉을 陰陽으로 구분하여 언급하였고, 『太素·雜刺』에서는 “刺肌肉分者, 不得傷骨筋之部.”라고 하여 肌肉과 筋骨의 深淺을 서로 대비하여 언급하였다<sup>32)</sup>. 張介賓은 『類經·疾病類·寒

熱病骨痺肉苛』에서 “肉者陰也, 陽盛則傷陰, 故令人肌肉消燦.”이라고 하여<sup>33)</sup> 역시 肌肉이 皮膚 등에 비하면 陰이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丹波元簡은 『靈樞識·官針』에서 馬蒔를 인용하여 “馬云肌肉分肉之辨, 肌肉在皮內肉上, 而分肉則近於骨者也. 分肉有二, 各部在外之肉曰分肉, 其在內近骨之肉與骨根分, 亦曰分肉.”이라고 하여<sup>34)</sup> 肌肉과 分肉의 분별에 대하여 논하였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기육(肌肉)<sup>35)</sup> : 살. 전신 운동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되는 조직. 기육의 영양은 비(脾)가 수곡정미(水穀精微)를 운화(運化)한 데서 얻어지므로 비가 주관하는 것이 된다. 《소문(素問)》 <위론(痿論)>에서 「비(脾)는 신체의 肌肉을 주(主)한다.(脾主身之肌肉)」라고 하였다. 기육의 풍만과 그로 인한 신체 운동의 여부는 비기(脾氣)의 성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㉔ 비주기육(脾主肌肉).

### ④ 분석 및 고찰

肌肉은 肌가 들어가는 표현의 총 91회 용례 가운데 61회 등장한다. 나머지 ‘肌’字가 들어간 用語는 肌膚 6회, 肌痺 5회, 肌核, 肌脹, 肌皮, 肌肌然 각 1회, 肌 단독으로 14회 사용되었다. 실제로 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肉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 ‘肌는 肉也’라고 풀이하였고, ‘几’에 대하여는 ‘踞几也’라고 풀었으며<sup>36)</sup>, ‘肉’은 ‘藏肉’이라고 풀이하였다.

清代的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아래 부속자에서 ‘鬻’는 크게 자른 덩어리 고기[大臠]이다”라고 하였다. ‘肉’은 새나 짐승의 고기를 말한다. …중략… 인간이 처음 살아갈 때부터 짐승의 고기를 먹었으므로 ‘肉’자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에 관계되는 글자를 만들게 되면서 ‘肉’으로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 89, 1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51, 119.

32)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444, 491.

33)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5.

34)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597.

3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18.

36) 說文解字. 漢典. <http://www.zdic.net>

편방을 썼으니 이는 또한 假借다. 사람의 살은 ‘肌’라 하고 짐승의 살은 ‘肉’이라 하는데 이는 분별한 것이다.”<sup>37)</sup>라고 주석하였는데, 清代는 역사적으로 후대이므로 이 주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肉’이라는 글자의 연원이 굉장히 오래되어 ‘肌, 肉也<sup>38)</sup>’, ‘筋, 肉之力也<sup>39)</sup>’, ‘骨, 肉之覈也<sup>40)</sup>’ 등의 『說文解字』 풀이의 예와 같이 ‘몸’을 지칭하는 글자들이 ‘肉’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肌’와 ‘肉’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肉’은 본래는 사람이 먹기 위해 사냥한 짐승의 살코기를 발라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살코기는 筋纖維를 따라서 갈래로 나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筋腹에서 유난하게 드러나므로 특히 이 부위를 지칭하여 分肉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코기로 발라놓기 전, 근섬유를 따라 고기가 풀어지기 전의 肉은 제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肌’라고 하며, 실제로 우리가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위는 고기 모양으로 발라놓기 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肌’라고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더하여 段玉裁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肉’이라는 글자는 그 연원이 워낙 깊고 오래되어 人體를 지칭할 때 ‘肉’과 ‘肌’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으므로 ‘肌’와 ‘肉’을 붙여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馬蒔가 肌肉과 分肉을 분리하여 본 주장은 설은 의미가 협소하며, 分肉은 肌肉이라는 전체 집합의 일부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肌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살로서 皮膚에서 빼어 이르는 제반 조직, 지방층과 muscle을 포괄하되 筋·韌帶 및 筋膜과 血脈은 제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肉과 관련된 구조물을 지칭하는 用語 중 가장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현대 用語 및 의미

37) 엄정삼. 설문해자주부수지역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pp.175-176.

38) 說文解字. 漢典. <http://www.zdic.net>

39) 說文解字. 漢典. <http://www.zdic.net>

40) 說文解字. 漢典. <http://www.zdic.net>

피부 아래 살의 통칭, 힘줄과 인대와 혈관은 제외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피부 아래 살의 통칭, 힘줄과 인대와 혈관은 제외, flesh<sup>41)</sup>

### 3) 肉腠(2회)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肉腠가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42)</sup>,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 開闔不得, 寒氣從之, 乃生大痺. 陷脈爲癢, 留連肉腠.”, “故風者, 百病之始也, 清靜, 則肉腠閉拒.”라고 하였다.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肉腠를 곧바로 肌腠라고 하여 肌肉의 紋理라고 하였는데, 肉腠를 肌腠로 본 것은 가능하나 腠를 紋理로 해석한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張景岳은 『類經·疾病類·生氣邪氣皆本於陰陽』에서 “陷脈, 寒氣自筋絡而陷入脈中也, 癢鼠之屬. 邪結不散則留連肉腠, 蔓延日甚矣.”라 하여<sup>43)</sup> 질환이 ‘肉腠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주석을 남겼는데, 肉腠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육주(肉腠)<sup>44)</sup> : 신체부위. 《소문(素問)》 <생기통천론(生氣通天論)>에서 「한사(寒邪)가 脈에 침범해 들어가면 위(痿)가 되며 肉腠에 머무른다.(陷脈爲癢, 留連肉腠.)」라고 하였다. 기주(肌腠).

기주(肌腠)<sup>45)</sup> : 肌肉의 문리(紋理). 肉腠, 분(分), 분리(分理)라고도 한다. 《소문(素問)》 <육원정기대론(六元正紀大論)>에서 「기주(肌腠)에 창양(瘡瘍)이

41) 대한해부학회가 인정하는 공식 해부학 用語는 아님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6.

43)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391.

4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35.

4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23.

생깁니다.(肌脹瘡瘍.)」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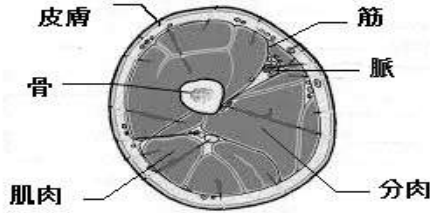


Fig. 1. Image of Bunyuk(分肉), Giyuk(肌肉) and Geun(筋) in cross section of thigh

#### ④ 분석 및 고찰

肉脹는 용례 자체가 적고 肉과 脹가 각각이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用語이다.

먼저 肉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陷脈爲瘻, 留連肉脹(脈이 폭 꺼진 곳은 부스럼·연주창 같은 것이 되어 肉脹에 오래 머물러 잘 낫지 않게 된다.)”라고 하여 瘻瘡이 생길 수 있는 부위로 지목하고 있는데, 分肉과 같은 肉의 특정 부위에서만 아니라 肌肉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肌肉으로 확대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脹의 해석을 위하여 脹<sup>46)</sup>와 理<sup>47)</sup>의 용례에 대해

46) 『說文解字』, 『康熙字典』(漢典, <http://www.zdic.net>) :

주(脹) : 『集韻』『韻會』『正韻』千切, 音湊. 膚脹也. 肉理分際也. 『儀禮·鄉飲酒禮』皆右體進脹. 『註』脹理也. 『史記·扁鵲傳』君有疾, 在脹理. 『註』脹謂皮膚. 『後漢·郭玉傳』脹理至微. 『註』脹理, 皮膚之間也. 『抱朴子·極言卷』唇焦脈白, 脹理萎瘁者, 血滅之證也. 又『正字通』通作奏. 『儀禮·公食大夫禮』載體進奏. 『註』奏謂皮膚之理也. 『康熙字典』

주(奏) : 奏進也. 从从升从中, 中, 上進之義. 古文, 亦古文. 則候切. 『說文解字』

주(湊) : 水上人所會也. 从水奏聲, 倉奏切. 『說文解字』  
『東亞漢韓大辭典』(동아출판사한학대사전편찬부.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476) :

주(脹) : 살결 주. 살결. 『素問』病有在毫毛脹理者.

47) 『說文解字』(漢典, <http://www.zdic.net>) :

리(理) : 治玉也. 从玉里聲, 良止切. 『說文解字』  
『東亞漢韓大辭典』(동아출판사한학대사전편찬부.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140) :

리(理) : 다스릴 리. 1 다스리다. ⑦ 옥을 갈다. 『戰國策』

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다. ‘脹’는 『黃帝內經』에서 총 85번 사용된 글자이며, 그 중에 ‘脹理’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가 70회이며, 나머지는 ‘肉脹’, ‘肌脹’, ‘皮脹’, ‘膚脹’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理’는 『黃帝內經』에서 총 157번 사용된 글자이며, 역시 ‘脹理’로 70회 사용되었고 약 51회 ‘도리, 이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肉理’, ‘分理’, ‘麤理’, ‘細理’ 등의 ‘무늬’라는 뜻으로 36회 가량 사용되었다. ‘脹理’를 제외한 ‘脹’와 ‘理’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합쳐서 ‘紋理’, 즉 ‘무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說文解字』와 『東亞漢韓大辭典』의 풀이를 참고하여 보면 ‘脹’는 상대적으로 ‘살결, 또는 잔무늬’의 의미가 강하며 ‘理’는 옥의 무늬와 같은 ‘큰 무늬, 紋理’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東醫寶鑑』<sup>48)</sup>의 풀이를 참고하면 津液이 스며나가는 곳을 脹라하고 살결이 모인 곳을 理라고 한다 하여 피부에서 脹는 毫毛와 汗孔을, 理는 살의 큰 무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肉脹’는 ‘肌肉의 잔무늬’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음에 고찰하게 될 ‘肉理’와의 변별점도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육주가 내경에서 2회의 제한된 용례이지만, 해석상 瘻(부스럼, 연주창)이 현재의 모공의 화농 또는 림프종 결핵성 부종성 질환으로 이것이 오래되어 육주에 머물러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피부보다 조금 더 깊은 부위로 해석될

謂玉未理者璞. ④ 바루다. 『春秋左氏傳』先王疆理天下. ⑤ 통하다. 『淮南子』生氣乃理. ⑥ 재관하다. 『漢書』將軍已下廷尉, 使理正之. ⑦ 처리하다. 『南史』幹理家事. ⑧ 손질하다, 수선하다. 『後漢書』修理長安古廟. ⑨ 구별하다. 『詩經』我疆我理. ⑩ 꾸미다. 『傳毅·舞賦』夸容乃理. 2 다스려지다. 『呂氏春秋』聖人之所在, 則天下理焉. 3 결, 도(道). 『禮記』禮也者, 理也. 4 조리(條理), 줄거리. 『易經』俯以察於地理. 5 결. ⑤ 물건의 표면에 있는 무늬. 『荀子』形體色理. ⑥ 피부의 결, 살결. 『荀子』則足以見鬚眉而察理矣. 6 성결. 『禮記』天理滅矣. 7 매개(媒介). 『楚辭』吾令蹇脩以爲理. 8 행동. 『禮記』理發諸外. 9 의지하다. 『孟子』大不理於口. 10 관리. ⑦ 吏. ⑧ 재관관. 『禮記』命理瞻傷. ⑨ 사자(使者). 『春秋左氏傳』行理之令. 11 깨닫다. 『呂氏春秋』後世初學, 且須理會氣象, 氣象好時, 百事是當.

48)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797. “皮毛屬肺. 內經曰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又云肺主皮毛, 又云在藏爲肺, 在體爲皮毛. 邪在肺則病皮膚痛.<靈樞> 皮膚亦曰脹理, 津液滲泄之所曰脹, 文理縫會之中曰理.<內經> 脹理亦曰玄府, 玄府者, 汗孔也. 汗液色玄從空而出, 以汗聚於裏, 故謂之玄府, 府, 聚也.<內經>”(外形爲皮)

수 있어 근육의 표면 혹은 淺層의 筋肉之間으로 보여진다. 한편 『素問生氣通天論』에서 “故風者, 百病之始也, 清靜, 則肉腠閉拒.”라 하여 肉腠의 外邪에 대한 人體의 방어 기능과 관련한 언급이 있으며, 『靈樞經脈』에서도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라 하여 外邪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 ⑤ 현대用語 및 의미

표부 근육의 사이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근육의 사이공간, 筋肉之間, intermuscular space (superficial)

#### 4) 肉理(1회)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肉理가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49)</sup>, 『素問生氣通天論篇』에서 “營氣不從, 逆於肉理, 乃生癰腫.”이라 하였다. 肉理란 결이 명확한 分肉 부위의 筋纖維의 결, 무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楊上善은 『太素·調陰陽』에서 “脈內營氣爲邪氣傷, 不得循脈陰陽相注, 故逆於肉理, 敗肉即生癰也.”라 하였다<sup>50)</sup>. 張介賓은 『類經·經絡類·氣穴三百六十五』에서 “水屬陰, 多在肉理諸分之間, 故治水者當取諸陰分, 如水俞五十七穴者是也.”, 『類經·疾病類·生氣邪氣皆本於陰陽』에서 “邪氣陷脈則營氣不從, 營行脈中也, 不從則不順, 故逆於肉理, 聚爲癰腫也.”, 『類經·疾病類·周痺衆痺之刺』에서 “邪氣客於肌表, 漸入分肉之間則迫切津液而爲汁沫, 沫得寒則聚而不散, 故排裂肉理爲痛.”이라 하였다<sup>51)</sup>. 丹波元簡은 張志聰을 인용하여

『靈樞識』에서 “志云小理者, 肌肉之文理細密, 粗理者, 肉理粗疏.”라고 하여<sup>52)</sup> 肉理라는 用語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의 肉理는 같은 문장 내의 ‘肌肉之文理’의 줄임말로 이용한 것이다. 위 내용에서의 肉理는 대체로 ‘肉의 무늬’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른 견해로는 『類經·疾病類·情志九氣』에서 張介賓이 “腠, 膚腠也, 理, 肉理也.”라 하여<sup>53)</sup> 腠理에서 腠는 皮膚의 주름이고 理는 肉理라고 언급한 경우인데, 위의 예시와는 다르게 ‘肉理’라는 用語를 사용한 것이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항목 없음.

#### ④ 분석 및 고찰

肉理를 『靈樞識』의 “志云小理者, 肌肉之文理細密, 粗理者, 肉理粗疏.”라는 표현을 빌어서 보자면 ‘肌肉의 紋理’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 의미가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여겨지나, 좀 더 자세한 의미 고찰을 위하여 肌와 肉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앞서 몇 번 논한 바와 같이 肉은 상대적으로 筋纖維의 결이 잘 드러나는 고기, 즉 分肉의 의미가 강하며, 肌 또는 肌肉이라고 할 때에는 皮膚 아래에서부터 뼈에 이르기까지의 힘줄과 血脈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을 통칭하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肉理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分肉의 결, 무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도 “營氣不從, 逆於肉理, 乃生癰腫.”이라 한 것은 ‘營氣가 따르지 않아 分肉의 결을 陽氣가 거슬러 흘러 이내 癰腫이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언급한 ‘肉腠’와 비교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 ⑤ 현대用語 및 의미

근육의 결(무늬)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6.

50)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46.

51)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29, 391, 564.

52)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777.

53)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463.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근육의 결(무늬), muscle texture or grain of muscle

### 5) 肉節(3회)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肉節이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54)</sup>,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岐伯答曰, 刺此者必中氣穴, 無中肉節, 中氣穴則鍼染於巷, 中肉節即皮膚痛, 補瀉反則病益篤.”이라 하여 鍼刺에 있어서 氣穴과 肉節을 대비하여 사용하였으며, 『靈樞·根結』에서는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故開折則肉節瀆而暴病起矣. 故暴病者, 取之太陽, 視有餘不足, 瀆者, 皮肉宛焦而弱也.”라고 하여, 太陽開折의 상황에서 ‘瀆(皮肉宛焦而弱)’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로 사용되었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楊上善은 『太素·陰陽合』에서 “惟有陽明闔者則肉節敗, 骨動搖也. 惟有少陽樞者則真氣行止留滯, 肉節乃敗也.”라고 하였고, 『太素·經脈根結』에서는 “太陽主骨氣爲關, 故骨氣折, 肉節乃敗.”라 하여 肉節에서 일어나는 太陽開折의 증상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少陽樞折의 증상에서 나타나는 骨의 이상을 太陽開折의 증상에 가졌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太素·府病合輸』에서 “若中肉節, 及中於筋, 不當空穴, 邪氣不出, 與真氣相薄, 正邪相亂, 更爲內病也. 以其用鍼不審, 乖理故也.”라 하여 『靈樞·邪氣藏府病形』과 같은 맥락으로 자침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서 ‘肉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up>55)</sup>.

張介賓은 또한 楊上善과 비슷하게 『類經·經絡類·諸經根結開闔病刺』에서 “開屬太陽, 爲陽中之表, 故氣在肌肉爲肉節瀆也. 表主在外, 邪易入之, 故多新暴病也.”라 하여 太陽開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鍼치료 부위와 관련하여 『類經·鍼刺類·六腑之病取之于合』에서 “經氣所至, 是爲氣穴, 肉有節界, 是爲肉節.”

이라 언급하여 氣穴은 經氣가 이르는 곳으로, 肉節은 肉의 마디와 경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sup>56)</sup>.

丹波元簡은 또한 『靈樞識』에서 “張云肉有節界, 其謂肉節.”, “張云太陽爲陽中之表, 故氣在肌肉, 爲肉節瀆也. 表主在外.”라 하여<sup>57)</sup> 張介賓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육질(肉節)<sup>58)</sup> : 살과 뼈가 서로 붙어 있는 부위. <<영추(靈樞)>> <사기장부병형(邪氣藏府病形)>에서 「이러한 혈자리들을 찌를 때는 반드시 기혈(氣穴)에 찔러야 하고 肉節에 찔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 ④ 분석 및 고찰

『類經·鍼刺類』의 “肉有節界, 是爲肉節.”이란 표현을 빌려보면 肉의 마디가 되며,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分肉의 마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東洋醫學大辭典』의 ‘살과 뼈가 서로 붙어 있는 부위’라는 해설은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肉節의 해설에 있어서 뼈와 관련된 표현이 없고 『靈樞·根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瀆者, 皮肉宛焦而弱也.”라 하여 皮肉이 약해지는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楊上善은 『太素·陰陽合』에서 “惟有陽明闔者則肉節敗, 骨動搖也. 惟有少陽樞者則真氣行止留滯, 肉節乃敗也.”, 『太素·經脈根結』에서는 “太陽主骨氣爲關, 故骨氣折, 肉節乃敗.”라 하여 肉節에서 일어나는 太陽開折의 증상에 少陽樞折에서 나타나는 骨의 이상을 끌어다 설명하였는데, 이는 牽強附會의 측면이 조금 있다. 물론 肉節이 실제로 뼈와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肉節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肉을 중심으로 논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分肉이 실질적으로 마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分肉의 마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56)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89, 692.  
57)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582, 584.  
58) 東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32.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40, 50.  
55)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 184, 208.

## ⑤ 현대 用語 및 의미

근육의 마디(힘살의 경계)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힘살의 경계, 근육의 마디(筋腹의 境界),  
boundary of muscle belly

## 6) 肉育(1회)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肉育이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59)</sup>, 『靈樞·脹論』에서 “脹論言無問虛實, 工在疾瀉, 近者一下, 遠者三下, 今有其三而不下者, 其過焉在. 岐伯對曰, 此言陷於肉育, 而中氣穴者也. 不中氣穴, 則氣內閉, 鍼不陷育, 則氣不行, 上越中肉, 則衛氣相亂, 陰陽相逐.”라 하였다. 여기에서 ‘肉育’이란 같은 편에서 “三里而瀉, 近者一下, 遠者三下, 無問虛實, 工在疾瀉.”라 하여 일반적으로 足三里穴의 근육에 아주 깊이 자침하는 일종의 手技와 관련된 표현으로 해석한다.

‘育’에 대한 내경의 다른 편들을 참고해 보면<sup>60)</sup> 『素問·腹中論』에서 “其氣溢於大腸而著於育, 育之原在齊下, 故環齊而痛也.”라 하였고, 『素問·奇病論』에도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며, 『素問·痺論』에서는 “衛者水穀之悍氣也. 其脈慄疾滑利, 不能入於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育膜, 散於胸腹, 逆其氣則病, 從其氣則愈, 不與風寒濕氣合, 故不爲痺.”, 『素問·刺禁論』에서는 “鬲育之上, 中有父母, 七節之傍, 中有小心, 從之有福, 逆之有咎.”, 『靈樞·九鍼十二原』“育之原, 出於腠腠, 腠腠一.”, 『靈樞·四時氣』에서는 “腹中常鳴, 氣上衝胸, 喘不能久立, 邪在大腸, 刺育之原, 巨虛上廉三里. 小腹控舉, 引腰脊, 上衝心, 邪在小腸者, 連牽系, 屬於脊, 貫肝肺, 絡心系. 氣盛則厥逆, 上衝腸胃, 燻肝, 散於育, 結於臍. 故取之育原以散之, 刺太陰以予之, 取厥陰以下之, 取巨

虛下廉以去之, 按其所過之經以調之.”라고 표현하여, 대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치끝 育’<sup>61)</sup>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楊上善은 『太素·脹論』에서 “肉育者, 皮下肉上之膜也, 量與肌膚同類. 氣穴謂是發脹脈氣所發穴也.”라 하였고<sup>62)</sup>, 張介賓은 『類經·疾病類·痺證』에서 “育者, 凡腔腹肉理之間, 上下空隙之處, 皆謂之育. 如刺禁論曰鬲育之上, 中有父母, 左傳曰膏之上, 育之下者, 是皆言鬲上也. 又腹中論曰其氣溢於大腸而著於育, 育之原在齊下, 九鍼十二原篇曰育之原, 出於腠腠. 脹論曰陷於肉育, 而中氣穴則育之爲義, 不獨以胸鬲爲言又可知也. 膜, 筋膜也.”라 하여<sup>63)</sup> 育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남겼다. 丹波元簡은 『靈樞識』에 張介賓을 인용하여 “張云上文云一下三下者, 言鍼當必陷於肉育, 亦必中於氣穴, 然後可以取效也. 張注痺論育膜云, 育者, 凡腔腹肉理之間, 上下空隙之處, 皆謂之育, 不獨以胸膈爲言.”이라 하였다<sup>64)</sup>.

## ③ 『東洋醫學大辭典』

육황(肉育)<sup>65)</sup> : 신체부위. 막원(膜原)을 이르는 말. <영추(靈樞)> <창론(脹論)>에서 「이는 육황(六育)에 들어가 기혈(氣穴)을 찌른 것을 말한 것입니다.(此言陷于肉育, 而中氣穴者也.)」라고 하였다. ④ 막원(膜原)<sup>66)</sup>.

5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178-179.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9, 163, 176, 19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 124.

61) 『東亞漢韓大辭典』(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458) :

황(育) : 명치끝 황. 명치끝. ※ 심장 아래, 횡격막 위. 고대 의사가 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생각한 곳. 『春秋左氏傳』疾不可爲也, 在育之上, 膏之下, 攻之不可.

62)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650.

63)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61.

64)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749.

65) 東洋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39.

66) 『東洋醫學大辭典(3)』(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48) :

막원(膜原) : 신체부위. 막(膜), 모원(募原)이라고도 함. ① 흉막(胸膜)과 횡격막 사이에 해당하는 부위. <소문(素問)> <거동론(舉痛論)>에서 「한기(寒氣)가 장위(腸胃)의 사이와 막원(膜原)의 아래에 침범한다.(寒氣

#### ④ 분석 및 고찰

대체로 張介賓의 고찰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張介賓은 ‘肓’을 “腔腹肉理之間, 上下空隙之處, 皆謂之肓 …중략… 則肓之爲義, 不獨以胸膈爲言.”이라 하여 우리가 대체로 명치끝이라는 의미로 쓰지만 꼭 그러한 뜻만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물론 膏肓<sup>67)</sup>, 肓之原<sup>68)</sup>, 肓膜<sup>69)</sup> 등과 같은 표현은 ‘명

치끝’의 의미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肉肓’은 ‘足三里穴 아주 깊은 곳, 分肉이 끝난 곳 보다 심층’을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 ⑤ 현대用語 및 의미

족삼리혈 부위 전경골근보다 심층 부위의 근육은 끝난 빈 지점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족삼리혈 부위 전경골근보다 심층 부위의 근육은 끝난 빈 지점, deep space above tibialis anterior muscle.

#### 7) 肉膈(8회), 膈肉(3회)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肉膈, 膈肉이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70)</sup>, 『靈樞·本藏』에서 “脾應肉, 肉膈堅大者, 胃厚. 肉膈麼者, 胃薄. 肉膈小而麼者, 胃不堅. 肉膈不稱身者, 胃下, 胃下者, 下管約不利. 肉膈不堅者, 胃緩. 肉膈無小裏累者, 胃急. 肉膈多少裏累者, 胃結, 胃結者, 上管約不利也.”, 『靈樞·壽夭剛柔』에서 “形充而大肉膈堅而有分者, 肉堅, 肉堅則壽矣. 形充而大肉無分理不堅者, 肉脆, 肉脆則夭矣.”라 하였으며, ‘膈肉’이란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는 『靈樞·五禁』에서

客于腸胃之間, 膜原之下)라고 하였으며, 왕빙(王冰)의 주해에서는 「막(膜)은 격간(膈間)의 막(膜)을 말하고, 원(原)은 격황(膈黃)의 원(原)을 말한다. (膜, 謂膈間之膜; 原, 謂膈黃之原).」라고 하였다. 丹波元簡 《의잉부록(醫利附錄)》 <모원고(募原考)>에서는 「대개 격막(膈膜)의 계(系)가, 척추 중 제7추(椎)에 붙어 있는 것이 즉 막원(膜原)이다. (蓋膈募(膜)之系, 附著脊之第七椎, 卽是膜原也)」라고 하였다. ② 온병변증(溫病辨證)에서 사(邪)가 반표반리(半表半裏)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르는 말. 《온역론(溫疫論)》에서 「그 사기(邪氣)가 표(表)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위(胃)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 사기(邪氣)가 막원(膜原)에 있어서 바로 위(胃)와 만나는 관문(關門)에 해당하므로 반표반리(半表半裏)가 된다. (其邪去表不遠, 附近於胃…… 邪在膜原, 正當經胃交關支所, 故爲半表半裏)」라고 하였다.

67) 『東洋醫學大辭典(1)』(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p.442-443) :

고황(膏肓) : 1. 심(心)의 아래, 격(膈) 아래의 부위. 《주후방(肘後方)》에 나온. 병위(病位)가 깊고 찾기 어려워 치료하기 어렵다. 병세가 위중한 환자를 병이 고황(膏肓)에 들어 갔다고 한다. 《좌전(左傳)》 <성공십년(成公十年)>에서 「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황(膏)의 위, 고(膏)의 아래에 있는데, 쳐도 안 되고 내보내려 하여도 미치지 못하는 약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疾不可爲式, 在肓之上, 膏之下, 攻之不可, 達之不及, 藥不至焉.)」라고 하였다. 고황 부위를 격중(膈中)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외대비요(外臺秘要)》 <오격(五膈)〉에서 「격중이 아픈 것을 고황(膏肓)이라 한다(膈中之患, 名曰膏肓).」고 하였다. 2. 혈자리. 족태양경(足太陽經)에 속함. 배부(背部)에 위치하며, 제4흉추극돌(胸椎棘突) 아래의 결 3치『寸』 거리에 있다. 고황수(膏肓俞)라고도 한다. ④ 고황수(膏肓俞). 3. 십이경원혈(十二經原穴)의 하나. 《영추(靈樞)》 <구침십이원(九鍼十二原)〉에서 「고(膏)의 원(原)은 구미(鳩尾)로 나오는데 구미(鳩尾)는 하나이다. 황(膏)의 원(原)은 발양(腠腠; 氣海穴)으로 나오는데 발양(腠腠)은 하나이다. (膏之原, 出于鳩尾, 鳩尾一. 肓之原, 出于腠腠, 腠腠一.)」라고 하였다.

68) 『東洋醫學大辭典(11)』(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05) :

황지원(肓之原) 1. 십이경(十二經), 원혈(原穴)의 하나. 기해혈(氣海穴) 부위로, 배꼽 아래 1치『寸』 5푼『分』 되는 곳에 있다. 《영추(靈樞)》 <구침십이원(九鍼十二原)〉에서 「황지원(肓之原)은 발양(腠腠)으로 나온다. (肓之原, 出于腠腠.)」라고 하였고, 《소문(素問)》

<복중론(腹中論)〉에서는 「황지원(肓之原)은 제하(臍下)에 있다. (肓之原在臍下.)」라고 하였다. 마시(馬蒔)는 주석에서 「황지원(肓之原)은 발양(腠腠)에서 나오는데, 그 혈(穴)은 하나이니, 일명 하기해(下氣海)라고 하고, 일명 하황(下肓)이라고 한다. 제하(臍下) 1.5치『寸』의 부드러운 부분에 있으며, 남자의 생기(生氣)의 해(海)이다. (肓之原出于腠腠, 其穴一, 一名下氣海, 一名下肓, 在臍下一寸半宛宛中, 男子生氣之海.)」라고 하였다. ③ 십이원혈(十二原穴). 2. 임맥(任脈)의 관원혈(關元穴). ④ 관원(關元).

69) 『東洋醫學大辭典(11)』(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481) :

황막(肓膜) : 심장 아래 가슴막 위의 중경능막을 말함. 줄여서 황(肓)이라고도 함. 《소문(素問)》 <비론(痺論)〉에서 「황막(肓膜)에서 훈증(熏蒸)한다. (熏於肓膜.)」라고 하였으며, 왕빙(王冰)의 주석에서 「황막(肓膜)은 오장(五藏)의 사이에서 막고 있는 막(膜)을 말한다. (肓膜謂五藏之間, 隔中膜也.)」라고 하였다.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58, p.215, 265, 298.

“著痺不移，膈肉破，身熱，脈偏絕，是三逆也.” 『靈樞·邪客』에서 “地有聚邑，人有膈肉.”라고 하였다. 의미는 사실상 동일해 보이며 ‘肉膈’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靈樞·壽夭剛柔』에서 “大肉膈堅而有分”，“大肉無分理不堅”이라 하여 ‘大肉膈’과 ‘大肉’을 서로 對句로 사용하였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大肉’이라고 하더라도 크고 단단하게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라야 ‘膈’을 붙여 ‘大肉膈’이라고 쓸 수 있으며, 덩어리를 이루지 못 하면 ‘膈’은 빼고 단지 ‘大肉’이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張介賓은 『類經·臟象類』에서 “膈者，筋肉結聚之處.”，“膈，肉之聚處也.”，“膈者，筋肉結聚之處堅而厚者是也.”，“膈肉者，脂肉之聚處也.” 등이라 하여 여러 번 ‘肉膈’ 및 ‘膈肉’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또한 『靈樞·五禁』에서 “著痺不移，膈肉破，身熱，脈偏絕，是三逆也.”라고 한 것에 대하여 『類經·鍼刺類』에서 “著痺破膈身熱而脈偏絕者，元有所脫也.”라고 하여 원문의 ‘膈’을 ‘膈’으로 바꾸어 주석하였고, 『素問·氣穴論』에서 “邪溢氣壅，脈熱肉敗，榮衛不行，必將爲膿，內銷骨髓，外破大膈.”이라 한 것에 대해서는 『類經·經絡類』에는 “膈，當作膈，誤也. 蓋膈可稱大，膈不必稱大也.”라고 하여 ‘膈’을 ‘膈’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sup>71)</sup>. 이로 보아 張介賓 시대에도 ‘膈’과 ‘膈’의 혼용에서 오는 혼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육군(肉膈)<sup>72)</sup> : 인체에서 肌肉이 비교적 두툼한 곳을 이르는 말. <영추(靈樞)> <본장(本藏)>에 「비(脾)는 肉에 응(應)하니, 육군(肉膈)이 견대(堅大)한 자는 위(胃)가 후(厚)하고 육군이 세소(細小)한 자는 위(胃)가 박(薄)하다.(脾應肉，肉膈堅大者，胃厚；肉膈麼者，胃薄.)」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경(類經)>

에는 「군(膈)은 肉이 모여 있는 곳이다.(膈，肉之聚處也.)」라고 하였다.

군육(膈肉)<sup>73)</sup> : <영추(靈樞)> <사전(師傳)>에 나옴. ㄹ 육군(肉膈).

## ④ 분석 및 고찰

대체로 『東洋醫學大辭典』의 ‘인체에서 肌肉이 비교적 두툼한 곳을 이르는 말’의 뜻을 따른다. 의미를 조금 추가하자면 대흉근이나 대둔근과 같은 大肉이라고 하더라도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結聚를 이루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膈’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⑤ 현대 용어 및 의미

대흉근, 대둔근 등의 큰 근육의 근복 부위.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큰가슴근(대흉근), 큰볼기근(대둔근) 등의 큰 근육의 근복 부위. muscle belly of big muscles like pectoralis major muscles, gluteus maximus muscles

## 8) 膈肉(3회)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膈肉이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74)</sup>, 『靈樞·五變』에서 “膈肉不堅，而無分理，理者麤理，麤理而皮不緻者，腠理疎，此言其渾然者.”라 하여 風病을 쉬이 앓는 사람을 진단해내는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靈樞·衛氣失常』에서 “膈肉堅，皮滿者，肥. 膈肉不堅，皮緩者，膏. 皮肉不相離者，肉.”이라 하여 肥人(또는 脂人)으로 표현, 膏人, 肉人의 세 유형의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膈肉’ 자체에 대해서 주석을 단 주가들은 없고

71)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6, 69, 92.

7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13.

7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5.

7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10, 256.

‘膕’에 대해서 楊上善은 『太素·天地合』에서 “曲脚也”라 하였고<sup>75)</sup>, 張介賓은 『類經·經絡類·骨度』에서 “膝後曲處曰膕”, 『類經·疾病類·風邪五變』에서 “膝灣曰膕 卽足太陽經委中穴也. 膕中爲谿谷之大會, 故其理麤而皮不緻者, 可以驗通身腠理之疎也.”라고 하였다<sup>76)</sup>.

### ③ 『東洋醫學大辭典』

꺽육(膕肉)<sup>77)</sup>: 오금의 살. <영주(靈樞)> <사진(師傳)>에서 「본장(本藏)은 신형지절꺽육(身形肢節膕肉)으로 오장육부의 크기를 살핀다.(本藏以身形肢節膕肉, 候五臟六腑之大小焉.)」라고 하였다.

### ④ 분석 및 고찰

‘膕肉’의 문자적 의미는 ‘오금의 살’이다. 『黃帝內經』 전편에 걸쳐 診斷·治療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膕’자와의 혼용으로 인해 오는 혼란에 대하여 가능한 정확한 고감을 통해 臨床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⑤ 現代用語 및 意味

오금 부위의 살과 근육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오금 부위의 살과 근육, 膝窩部の 근육, muscles and fat tissue of popliteal region

### 9) 肉之柱(1회), 肉有柱(1회)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肉之柱와 肉有柱이 사용된 대표적인 용례들을 살펴보면<sup>78)</sup>, 『靈樞·衛氣失常』에서 “伯高曰, 夫百病變化, 不可勝數, 然皮有部, 肉有柱, 血氣有輸, 骨有屬. 黃帝曰, 願聞其故. 伯高曰, 皮之

部, 輸於四末. 肉之柱, 在臂脛諸陽分肉之間, 與足少陰分間.”이라 하여 皮, 肉, 氣血, 筋, 骨 가운데 肉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활용한다고 하였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張介賓은 『類經·鍼刺類』에서 “病在肌肉, 當治其柱柱者, 膕之屬也. 堅厚之肉, 多在手足三陽分肉間, 以肉主於脾, 而脾主四支也. 足少陰之經, 自足心循內踝後 入足跟, 以上膕內, 出膕內廉, 上股內後廉, 會於尻臀貫脊, 其肉俱厚, 故亦爲肉之柱.”라 하였고<sup>79)</sup>, 丹波元簡은 張介賓을 그대로 인용하였다<sup>80)</sup>.

### ③ 『東洋醫學大辭典』

육주(肉柱)<sup>81)</sup>: 혈자리. <동의보감(東醫寶鑑)> <침구편(鍼灸篇)>에서 「승산(承山) 두 혈자리는 어복(魚腹), 장산(腸山), 육주(肉柱)라고도 하는데, 승근(承筋; 銳膕腸) 아래 分肉 사이의 들어간 곳에 있다.(承山二穴, 一名魚腹, 一名腸山, 一名肉柱, 在銳膕腸下, 分肉間陷中)」라고 하였다. 承山(承山)<sup>82)</sup>.

### ④ 분석 및 고찰

‘肉柱’를 『靈樞·衛氣失常』에서 ‘在臂脛諸陽分肉之

79)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95.

80)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812.

8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8).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35.

82) 『東洋醫學大辭典(6)』(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94) :

승산(承山) : 혈자리. <영주(靈樞)> <위기(衛氣)>에 나온다.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에 속함. 어복(魚腹), 육주(肉柱), 상산(傷山)이라고도 함. 종아리 뒤쪽의 장딴지근(gastrocnemius muscle) 두 갈래가 만나는 곳의 아래 끝에 위치하는데, 발목관절을 쭉 폼 때 인(人)자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다. 혹은 위중혈(委中穴)에서 곧장 아래로 8치『寸』인 곳에서 혈자리를 취한다. 내측장딴지피부신경(medial sural cutaneous nerve)이 분포되어 있고, 심층(深層)에는 경골신경(tibial nerve)이 있으며, 작은복제정맥(small saphenous vein)과 심층의 뒤경골동맥·정맥(posterior tibial artery and vein)이 지나간다. 소퇴통(小腿痛), 요배통(腰背痛), 격란전근(霍亂轉筋), 변비, 치창(痔瘡), 탈항(脫肛), 장딴지근의 경련(痙攣), 좌골신경통(坐骨神經痛), 하지마비(下肢麻痺) 혹은 탄탄(癱瘓) 등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침은 1~2치 깊이로 놓고, 뜸쪽은 3~5장(壯) 뜨고, 뜸막대로는 5~10분 동안 뜸을 뜬다.

75)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64.

76)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58, 583.

7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1).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52.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55.

間, 與足少陰分間'라고 하였고, 張介賓의 『類經·針刺類』의 주석을 참고하여 볼 때 '四肢의 肘膝關節 이하의 手足三陽經의 分肉群과 足少陰經의 分肉群 가운데 기둥 역할을 하는 分肉群'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足少陰經의 分肉의 범위를 肘膝關節 이하로 한정해야 하는가 아닌가가 확실하지 않지만 문장 구조상 전체 유주를 말한 것으로 보아 足少陰經의 肉柱는 足少陰經의 分肉 전체에 걸쳐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

#### ⑤ 現代用語 및 意味

사지의 주슬관절 이하의 외측 부 근육군과 족소음경(足少陰經) 분포 부위의 근육군

#### ⑥ 해부학 표현 및 위치

팔다리의 아래쪽 바깥의 근육들, 사지의 주슬관절 이하의 외측 부 근육군, lateral muscles of forearm and leg

### 10) 肉分(2회)

#### ① 『黃帝內經』의 용례 고찰

『黃帝內經』에서 肉分이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sup>83)</sup>, 『素問·氣穴論』에서 “肉之大會爲谷, 肉之小會爲谿, 肉分之間, 谿谷之會, 以行榮衛, 以會大氣.”라고 하여 谿谷과 관련하여 分肉의 사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靈樞·九鍼論』에서는 “二者, 地也, 人之所以應土者, 肉也, 故爲之治鍼, 必審其身而員其末, 令無得傷肉分, 傷則氣得竭.”이라 하여 ‘肌肉 部分’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제가들의 주석 고찰

楊上善은 『太素·氣穴』에서 『素問·氣穴論』에 대한 주석에서 “以下言分肉相合之間, 自有大小. 大者稱谷, 小者名谿, 更復小者以爲溝洫, 皆行營衛, 以舍邪之大氣也.”라 하였다<sup>84)</sup>.

張介賓은 『類經·經絡類·孫絡溪谷之應』에서 “凡分肉之間, 谿谷之會, 皆所以行榮衛之大氣者也.”라고 설명하여 ‘肉分’을 ‘分肉’으로 해석하였고, 『類經·鍼刺類』에서는 “邪在膚肉, 脾經病也, 當用第六鍼. 曰員利鍼者, 以取五十九穴之肉分也.”, “無傷脈肉爲故, 其故在勿傷脈肉也, 益骨痺之邪最深. 當直取之, 無於脈分肉分, 妄泄其眞氣, 但鍼入之道, 由大分小分之間耳. 必使骨間氣熱, 則止鍼也.”, “病在筋者, 直當刺筋, 若鍼至肉分而去, 不及於筋則病不在脾, 是傷肉也.”라고 하여 ‘肌肉 部分’의 의미로 보았다<sup>85)</sup>.

丹波元簡은 『靈樞識·九鍼論』에서 “令無得傷肉分, 傷則氣得竭, 甲乙作以瀉肉分之氣. 令不傷肌肉, 則邪氣得竭.”라 하여<sup>86)</sup> 역시 ‘肌肉 部分’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육분(肉分)<sup>87)</sup>: 肌肉의 文理(紋理). 《素問(素問)》> <기혈론(氣穴論)>에 ‘육분(肉分)의 사이와 계곡(谿谷)이 만나는 곳이다.(肉分之間, 谿谷之會.)’라고 하였다.

#### ④ 분석 및 고찰

『東洋醫學大辭典』에서 肉分을 ‘肌肉의 紋理’라고 정리하였는데, 紋理라고 풀이할 때에는 腠나 理와 같은 글자가 들어가야 하므로 ‘肌肉 또는 分肉의 나뉨.’ 정도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두 번째 뜻으로는 『靈樞·九鍼論』에서 “二者, 地也, 人之所以應土者, 肉也, 故爲之治鍼, 必審其身而員其末, 令無得傷肉分, 傷則氣得竭.”라고 한 용례와 같이 皮, 肉, 筋, 脈, 骨 중 ‘肌肉 部分’을 폭넓게 지칭하는 의미도 있다.

#### ⑤ 현대 用語 및 의미

1. 肌肉 또는 分肉의 나뉨.

8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0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31.

84)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15.

85)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30, 735, 769.

86)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899.

87) 東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5.

Table 1. Comparing old and new definitions of selected terminologies about body structure that contains Yuk(肉) character.

명칭	횟수	기존 뜻	새로 정리한 뜻
단순肉	약109	1. 肌肉. 2. 살찐 사람의 유형(類型)	
肌肉	61	살. 전신 운동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되는 조직.	살, 피부 밑에서부터 뼈에 이르는 제반 구조물과 조직, 지방층과 근육을 포괄하되 筋髓 및 筋膜과 血脈은 제외
肉腠	2	신체부위. ⇨ 기주(肌腠).(기주肌腠 肌肉의 문리(紋理). 육주(肉腠), 분(分), 분리(分理)라고도 한다.)	근육의 사이공간 (筋腹之間)
肉理	1	* 肌肉의 큰 무늬. 肉腠보다 큰 紋理이다.	근육의 결 (무늬)
大肉	7	인체의 허벅다리, 팔, 엉덩이 등의 비교적 비대한 근육.	
分肉	45	1. 신체부위. ① 지방층과 肌肉이 만나는 부위 또는 기육이 서로 겹친 부위. ② 肌肉. 2. 혈자리. ① <소문(素問)> <기혈론(氣穴論)>에서 「부수(府俞)는 72혈로…… 분육(分肉)에 2혈이 있다. ⇨ 양보(陽輔). ② 양유맥(陽維脈)의 수혈(俞穴)을 말함.	1. 힘살, 근육 또는 근복(筋腹), muscle belly 2. 깊은 근육, 심부 근육, deep muscle 3. 근복이나 근육의 나뉘는 또는 그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 between divided muscle belly or space between divided muscle belly
肉節	3	살과 뼈가 서로 붙어 있는 부위.	힘살의 경계, 근육의 마디 (筋腹의 境界), boundary of muscle belly
良肉	2	* 건강한 肌肉	
白肉際	2	신체부위. 손발과 팔다리의 안쪽에 약간 흰빛을 띠는 살과 바깥쪽에 약간 벌건빛을 띠는 살의 경계 부위[赤白肉際]에서 흰빛을 띠는 살 부위를 말함. 적육제(赤肉際)와 상대되는 부위이다.	
肉肯	1	신체부위. 막원(膜原)을 이르는 말.	足三里穴 아주 깊은 곳, 分肉이 끝난 곳 보다 심층
肉腠	8	인체에서 肌肉이 비교적 두툼한 곳을 이르는 말.	인체에서 肌肉이 비교적 두툼한 곳을 이르는 말 (본래 두툼한 곳이라도 肌肉 빠져서 結聚를 이루지 못 하면 ‘腠’이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음)
腠肉	3	<<영추(靈樞)>> <사전(師傳)>에 나옴. ⇨ 육근(肉腠).	
腠肉	3	오금의 살.	오금 부위 (膝窩部)의 살과 근육
肉有柱	1		四肢의 肘膝關節 이하의 手足三陽經의 分肉群과 足少陰經의 分肉群 가운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分肉群
肉之柱	1	육주(肉柱). 혈자리. ⇨ 승산(承山).	
肉分	2	肌肉의 문리(紋理).	1. 肌肉 또는 分肉의 나뉘 2. 肌肉 部分

2. 皮·肉·筋·脈·骨 중 肌肉 部分, 살과 근육 부위.

### ㉞ 해부학 표현 및 위치

1. 근육 사이 고랑, groove of between muscles
2. 근육과 지방 조직, muscles and fat tissues

이상의 고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리한 用語의 의미를 기존의 『東洋醫學大辭典』에 기반 한 의미와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대체로 기존의 뜻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표에서 새로 정리한 의미들은 用語의 語原이나 本質에 충실하고 간결하게 풀이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정리를 기준으로 기존 의미와 함께 활용하면 각 用語의 意味의 본질과 活用의 다양성을 두루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의미와 비교하여 가장 차이나는 用語는 分肉이다. 分肉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부학 용어

인 筋肉이란 말을 의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뚜렷한 淵源을 가진 用語이다. 또한 지금 까지 分肉의 풀이가 올바르지 않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 하였던 문장을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肌肉과 같은 경우도 五體와 더불어 논할 때 筋이나 膜 등과 경계를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用語인데,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기타 肌肉, 筋膜 등과 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의 나머지 用語들에 대한 설명은 거의 ‘肌肉’의 의미와 공간적 경계, 그리고 ‘分肉’의 의미에 의존한 것들이다.

#### 4. 文獻的 의미와 용례 분석을 통한 五體 간의 상관관계 분석

『黃帝內經』 내에서 五體 관련 用語들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皮’가 261회, ‘肉’이 368회, ‘筋’이 295회, ‘骨’이 412회 등장하였으며 ‘脈’은 經絡으로서의 脈이 많이 포함되어 1153회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皮, 肉, 筋, 骨, 脈의 순서대로 각 用語에 대한 『說文解字』, 字典, 『東洋醫學大辭典』의 풀이 및 『黃帝內經』에서의 대표적 용례를 살펴보고 서로간의 관계와 공간적 위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黃帝內經』에는 인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重層的 視覺을 활용하는 독특한 방법론을 활용하는데, ‘形體’에 대한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形’이란 三陰三陽의 氣가 陰陽의 법칙인 開闔에 따라 盈虛하는 것<sup>88)</sup>이라면 ‘體’란 내부의 五臟과 외부의 五體가 五行의 법칙에 따라 盛을 이루어 盛衰하는 것<sup>89)</sup>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다른 요소들, 이를테면 腦髓, 津液, 血氣 등은 논의로 하고 오직 皮, 肉, 筋, 骨, 脈만을 五體라고 일컫는 것이다.

##### 1) 皮

皮와 膚는 밀접한 관계이므로 함께 고찰한다.

##### ① 『說文解字』의 풀이

『說文解字』에서 皮는 “皮, 剥取獸革者謂之皮. 从又, 爲省聲. 凡皮之屬皆从皮. 古文皮, 籀文皮. 符羈切<sup>90)</sup>.”이라 하여 짐승의 가죽을 손으로 벗겨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膚에 대해서는 『說文解字』 자체의 풀이는 없고 『說文解字注』에서 “籀文臚, 經籍通用此字. 禮運曰膚革充盈. 引伸爲狼跋文王之膚美, 爲六月之膚大, 爲論語之膚受.”라 하여 ‘籀文<sup>91)</sup>으로는 臚(살갓 러)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臚를 함께 살펴보면 ‘臚, 皮也. 从肉盧聲. 膚, 籀文臚. 力居切.’<sup>92)</sup>이라 하여 ‘臚는 皮이다. 膚는 籀文으로 臚이다.’라고 하여 ‘膚’가 ‘皮’와 의미 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東亞漢韓大辭典』

피(皮)<sup>93)</sup> : 가죽 피. 1 가죽. ※ 털이 붙은 채의

8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三經者, 不得相失也, 搏而勿浮, 命曰一陽. …중략…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三經者不得相失也. 搏而勿沈, 名曰一陰. 陰陽重雋重, 積傳爲一周, 氣裏形表, 而爲相成也.”(素問陰陽離合論)

8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9. “心之合脈也, 其榮色也, 其主腎也.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其主心也. 肝之合筋也, 其榮爪也, 其主肺也. 脾之合肉也, 其榮唇也, 其主肝也.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其主脾也.”(素問五藏生成)

90) 說文解字注. 漢典. <http://www.zdic.net>. “剥取獸革者謂之皮. 剥, 裂也, 謂使革與肉分裂也. 云革者, 析言則去毛曰革, 統言則不別也. 云者, 謂其人也. 取獸革者謂之皮. 皮, 被, 被, 析也, 見木部. 因之所取謂之皮矣. 引伸凡物之表皆曰皮. 凡去物之表亦皆曰皮. 戰國策言皮面扶眼王. 儻約言落桑皮椹, 釋名言皮瓠以爲蓄皆是. 从又, 又手也, 所以剝取也. 爲省聲. 符羈切. 古音爲皮皆在十七部. 凡皮之屬皆从皮.”

91) 『東亞漢韓大辭典』(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343) :

주문(籀文) : 漢字의 字體의 한 가지. 小篆의 前身으로서 大篆이라고도 한다. 周 宣王 때의 太史였던 籀가 창작하였다.

92) 說文解字注. 漢典. <http://www.zdic.net>. “皮也. 今字皮膚從籀文作膚, 膚行而臚廢矣. 晉語, 聽臚言於市. 史, 漢臚句傳, 蘇林曰上傳語告下爲臚. 此皆讀爲敷奏以言之敷也. 史記, 臚於郊祀. 漢書, 大夫臚岱. 韋昭辨釋名. 鴻, 大也. 臚, 陳序也. 謂大以禮陳序賓客. 此皆讀爲廷實旅百之旅也. 劉熙釋名. 鴻臚, 腹前肥者曰臚. 以京師爲心體, 王侯外國爲腹映, 以養之也. 此讀爲夏右映之映, 皆假借也. 其本義則皮膚也. 从肉. 盧聲. 甫無切. 五部.”

벗긴 가죽. 『周禮』秋斂皮. 2 꺾질. 『漢書』以竹皮爲冠. 3 겹, 가죽, 사물의 표면. 『韓愈·詩』榆莢車前蓋地皮. 4 갓옷, 털옷, 모피옷. 『莊子』冬日衣皮毛. 5 과녁, 가죽으로 쏘는 과녁. 『論語』射不主皮. 6 벗기다, 꺾질을 벗기다. 『戰國策』因自皮面扶眼. 7 떨어지다, 떼다. 8 얽은 물건. ※ 銅皮(동피), 鐵皮(철피), 豆腐皮(두부피) 따위. 9 이끼, 태선(苔蘚).

부(膚)<sup>94</sup> : 살갓 부. 1 살갓. ㉔ 피부. 『論語』膚受之愆. ㉕ 나무의 겉껍질, 표피. 『後漢書』用樹膚麻頭及敝布魚網, 以爲紙. 2 고기. ㉖ 저민 고기. 『禮記』麋膚魚醢. ㉗ 돼지 고기. 『儀禮』膚鮮魚鮮腊, 設扁鼎. ㉘ 갈비의 살. 『儀禮』雍人倫膚九. 3 문사(文辭)가 친박하다. 『張衡·東京賦』所謂末學膚受. 4 떨어지다. 5 벗기다. 6 붙다. 7 갈개. 8 이끼. 『韓愈·孟郊·城南聯句』青膚瑤瑤楨. 9 기름. 『漢書』噬膚之思. 10 크다, 넓다. ≡ 博 『孟子』殷士膚敏. 11 아름답다. 『詩經』公孫碩膚. 12 네 손가락을 나란히 한 길이. 『春秋公羊傳』膚寸而合.

려(臚)<sup>95</sup> : ① 살갓 려 ② 제사 이름 려 ① 1 살갓, 가죽. 『抱朴子』淳于能解臚以理腦. 2 배 『腹』의 앞. 3 퍼다, 순서 대로 늘어놓다. ≡ 攄 『史記』攄之無窮. 4 펼쳐 놓다. ≡ 敷. 『史記』臚於郊祀. 5 전하다. 『國語』風聽臚言於市. 6 행(行)하다. 『張衡·東京賦』臚人列. ② 7 제사 이름, 천신(天神)·산천(山川)을 제사 지내는 제사. ≡ 旅. 『漢書』大夫臚岱.

『東亞漢韓大辭典』의 풀이를 살펴보면 皮는 가죽이고 膚와 臚는 살갓이다. 물론 ‘갓’<sup>96</sup>은 가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갓은 살가죽이 된다. 皮는 『說文解字』의 풀이에서 보듯이 ‘손으로 벗겨 낸 가죽’의 의

93)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206.  
94)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479.  
95)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485.  
96) 갓 : 발음, 간. 명사. 1. 『옛말』 ‘가죽’의 옛말. 2. (일부 속담에 쓰여) ‘가죽’을 이르는 말. 어원 : 갓 <훈민정음(해례본)(1446)> (NAVER 국어사전)

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피(皮)<sup>97</sup> : 피부. 『영추(靈樞)』 <구침론(九鍼論)>에서 「皮는 폐(肺)의 합(合)이다.(皮者, 肺之合也.)」라고 하였다. ㉔ 피모(皮毛).

부(膚)<sup>98</sup> : 신체부위. 1. 皮膚, 피모(皮毛). 2. 기부(肌膚). 『소문(素問)』 <오상정대론(五常政大論)>에서 「그 병(病)은 부(否; 痞)이며, 그 미(味)는 감(甘)이며, 그 음(音)은 궁(宮)이며, 그 물(物)은 부(膚)이다.(其病否, 其味甘, 其音宮, 其物膚.)」라고 하였다.

여(臚)<sup>99</sup> : 신체부위. 배 앞쪽의 근육과 근막(筋膜). 『천금익방(千金翼方)』 <부인편(婦人篇)>에서 「복충(伏蟲)이 있으면 여(臚)가 더부룩하게 부른다.(有伏蟲臚脹腫)」라고 하였다.

피부(皮膚)<sup>100</sup> : 살갓. ㉕ 피모(皮毛).

피모(皮毛)<sup>101</sup> : 살갓과 거기에 난 털을 통틀어 이르는 말. 피모는 폐위(肺衛)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폐위의 기가 성하면 기표(肌表)가 고밀(固密)하고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져 외사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나, 폐위의 기가 허하면 피모의 주리가 느슨해져 풍한사(風寒邪)가 쉽게 침투하여 호흡기 계통의 병증이 발생한다. 기표가 고밀하지 못하면 진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한(自汗), 도한(盜汗) 등의 증세가 생긴다. ㉖ 폐합피모(肺合皮毛).

### ④ 『黃帝內經』의 용례

피에 대한 용례들은 다음과 같다<sup>102</sup>. 『素問四氣

9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10).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93.  
9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4).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59.  
9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6).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96.  
10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10).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99.  
10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10).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98.  
10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 pp.24-25, p.39, 54, 19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調神大論』에서 “去寒就溫，無泄皮膚使氣亟奪，此冬氣之應養藏之道也.”，『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故邪風之至，疾如風雨，故善治者治皮毛，其次治肌膚，其次治筋脈，其次治六府，其次治五藏.”，『素問診要經終論』에서 “故春刺散俞，及與分理，血出而止，甚者傳氣，間者環也。夏刺絡俞，見血而止，盡氣閉環，痛病必下。秋刺皮膚，循理，上下同法，神變而止。冬刺俞竅於分理，甚者直下，間者散下.”，『靈樞大惑論』에서 “其腸胃小，皮膚滑以緩，分肉解利，衛氣之留於陽也久，故少瞑焉.”라고 한 내용들은 皮膚와 皮毛의 外邪에 대한 방어 기능과 衛氣와의 생리적 연관성, 그리고 그에 따른 施鍼의 深淺에 있어서 皮膚 또는 皮毛를 치료함에 淺刺해야 함을 논한 것들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西方生燥，燥生金，金生辛，辛生肺，肺生皮毛，皮毛生腎，肺主鼻。其在天爲燥，在地爲金，在體爲皮毛，在藏爲肺，在色爲白，在音爲商，在聲爲哭，在變動爲欬，在竅爲鼻，在味爲辛，在志爲憂。憂傷肺，喜勝憂，熱傷皮毛，寒勝熱，辛傷皮毛，苦勝辛.”，『素問五藏生成』에서 “心之合脈也，其榮色也，其主腎也。肺之合皮也，其榮毛也，其主心也。肝之合筋也，其榮爪也，其主肺也。脾之合肉也，其榮唇也，其主肝也。腎之合骨也，其榮髮也，其主脾也.”，『靈樞九鍼論』에서 “一者，天也，天者，陽也，五藏之應天者肺，肺者，五藏六府之蓋也，皮者，肺之合也，人之陽也.”라고 한 내용에서 皮膚와 肺의 合에 대해서 논하여 그 생리와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靈樞經脈 第十』에서는 “人始生，先成精，精成而腦髓生，骨爲幹，脈爲營，筋爲剛，肉爲牆，皮膚堅而毛髮長，穀入於胃，脈道以通，血氣乃行.”이라 하여 皮膚의 용도를 ‘굳고 단단하게 하다[堅]’라고 표현하고 있다.

『素問皮部論』에서는 “皮者，脈之部也。邪客於皮，則腠理開，開則邪入客於絡脈，絡脈滿，則注於經脈，經脈滿，則入舍於府藏也。故皮者，有分部，不與而生大病也.”라고 하여 孫脈，絡脈，經脈 등의 經絡 體系와 皮膚를 연결 지어 논하였다.

## ⑤ 분석 및 고찰

p.79, 331, 343.

皮膚는 총 261회의 용례 가운데 皮膚 93회, 皮毛 30회 등 사용되어 膚, 毛 등과 많이 연계되어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皮는 가죽이고 膚는 살가죽인데, 『說文解字』는 皮를 ‘剥取獸革者謂之皮(동물의 가죽을 손으로 벗겨낸 것이다)’라고 하여 皮라는 글자는 어원적으로 벗겨낸 가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皮와 膚의 의미 관계가 앞서 고찰했던 肉과 肌의 의미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肌가 사람의 肉을 칭하기 위해 일종의 수사로 사용되었듯이, 膚 또한 벗겨내지 않은 皮를 칭하기 위해 일종의 수사로 사용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肌가 肉이 가진 ‘잘라낸 고기’의 의미와 다름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膚에는 皮가 갖는 ‘벗겨낸 가죽’과는 다름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膚는 ‘고기 肉’을 부수로 삼고 있는데 이는 皮膚와 肉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肉

‘肌’와 ‘肉’에 대하여는 앞에서 자세히 고찰하였으므로 생략한다.

## 3) 筋

### ① 『說文解字』

筋에 대하여 “肉之力也。从力从肉从竹。竹，物之多筋者。凡筋之屬皆从筋。居銀切。”<sup>103)</sup>이라고 하여, ‘살의 힘줄이다’라고 풀이하였다.

### ② 『東亞漢韓大辭典』

근(筋)<sup>104)</sup> : 힘줄 근. 1 힘줄. 『周禮』 凡藥以辛養筋. 2 힘, 체력. 『禮記』 老子不以筋力爲禮.

막(膜)<sup>105)</sup> : ① 막 막 ② 오랑캐 절 모 ① 1 막(膜), 얇은 꺼풀. 『素問』 膜原之下. 2 사막. ≒漠. 3

103) 說文解字注. 漢典. <http://www.zdic.net>. “肉之力也。力下曰筋也。筋力同物，今人殊之耳。考工記故書筋或作筋。从肉力。从竹。竹，物之多筋者。說從竹之意。居銀切。十三部。凡筋之屬皆从筋。”

104) 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321.

105) 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p.1479.

어루만지다. ㉒ 4 오랑개의 절의 이름. ※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 ③ 『東洋醫學大辭典』

『黃帝內經』에서 ‘筋’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膜’을 함께 참고하였다.

근(筋)<sup>106</sup> : 신체부위. 기건(肌腱)을 말함. 뼈에 붙어 있는 것을 筋이라 하며 그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을 근막(筋膜)이라 한다. 근성(筋性)은 단단하고 질기며 강직하여 관절, 肌肉 등의 운동 기능을 결속, 보호한다. <영주(靈樞)> <경맥(經脈)>에 “筋은 견고하고 강하다.(筋爲剛.)”라고 하였다. 근과 근막의 기능은 간이 주도하고 아울러 간혈로 유양(濡養)된다. <소문(素問)> <위론(痿論)>에 “간(肝)은 신체의 근막(筋膜)을 주관한다.(肝主身之筋膜.)”라고 하였다. 간의 정기(精氣) 성쇠는 근력의 강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㉓ 간합근(肝合筋).

막(膜)<sup>107</sup> : 1. 체내의 얇은 피부 같은 조직. 이막(耳膜), 근막(筋膜) 등이 있다. <소문(素問)> <위론(痿論)>에서 “간(肝)은 신체의 근막(筋膜)을 주(主)한다.(肝主身之筋膜.)”라고 하였다. 2. 신체부위. 늑막과 횡격막 사이에 해당하는 부위. <소문(素問)> <학론(瘧論)>에서 “막원(膜原)에 횡(橫)으로 이어진다.(橫連膜原也.)”라고 하였다. ㉔ 막원(膜原). 3. 눈에 작고 얇은 점막이 생기는 병증.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제2권에 나옴. 눈에 조각 진 얇은 꺼풀이 씌워지고 흔히 몇발까지 서는 것으로 대부분 흰자위에서 검은자위로 번지며, 심하면 눈동자까지 가려져 잘 안 보이게 된다. 핏발이 진하면서 촘촘하게 선 경우를 적막(赤膜)이라고 하고, 열으면서 성긴 경우는 백막(白膜)이라고 한다. 막(膜)이 얇으면서 빛깔이 옅고, 눈동자를 가리지 않은 경우는 가볍고, 막이 두꺼우면서 빛깔이 빨강고, 눈동자까지 가리는 경우는 심하다. 심한 경우 막이 빨강고 두툼하여 피가 고이고 살이 쌓인 것처럼 되며, 검은자위가 운동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㉕ 적막하수(赤膜下垂).

근막(筋膜)<sup>108</sup> : 신체부위. 肌肉의 단단하고 질긴 부분. 골절에 붙어 있는 것은 筋이며, 그 밖을 싸고 있는 것을 근막(筋膜)이라 한다. 이는 관절, 기육을 연결하여 운동 조직을 주도하며 간이 주재하고 간혈(肝血)의 자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문(素問)> <위론(痿論)>에서 “간(肝)은 신체의 근막(筋膜)을 주(主)한다.(肝主身之筋膜.)”라고 하였다. 간혈부족(肝血不足), 간풍내동(肝風內動) 등은 모두 근막의 병변을 발생시킨다. ㉖ 간주근(肝主筋).

### ④ 『黃帝內經』의 용례

筋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9</sup>. 『素問-五藏生成』에서 “心之合脈也, 其榮色也, 其主腎也.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其主心也. 肝之合筋也, 其榮爪也, 其主肺也. 脾之合肉也, 其榮唇也, 其主肝也.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其主脾也.”, 『素問-痿論』에서 “肺主身之皮毛, 心主身之血脈, 肝主身之筋膜, 脾主身之肌肉, 腎主身之骨髓.”, 『素問-平人氣象論』에서 “春胃微弦曰平, 弦多胃少曰肝病, 但弦无胃曰死, 胃而有毛曰秋病, 毛甚曰今病. 藏眞散於肝, 肝藏筋膜之氣也.”라고 한 내용들은 肝과 筋의 습에 대하여 그 생리적 의미 및 진단에서의 활용 등을 논한 것이며, 여기에서 ‘筋膜’이란 표현도 볼 수 있다.

『素問-刺齊論』에서 “刺骨者無傷筋, 刺筋者無傷肉, 刺肉者無傷脈, 刺脈者無傷皮, 刺皮者無傷肉, 刺肉者無傷筋, 刺筋者無傷骨.”라고 하여 筋의 施鍼에 있어서의 深淺을 논하고 있다.

『靈樞經脈』에서는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이라 하여 筋의 용도를 ‘굳세게 하다(剛)’라고 표현하고 있다.

『素問-刺腰痛』에서 “在膝筋肉分間”라고 하여 치료

10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113.

10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3).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47.

10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117.

10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9, 65, 153, 166, 189, 29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79.

처가 무릎의 힘줄과 분육 사이에 있다는 표현이 있으며, 『素問至真要大論篇 第七十四』에서는 “筋肉拘苛, 血脈凝泣, 絡滿色變, 或爲血泄.”라 하여 筋肉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筋肉이라는 단일 단어가 아니고 ‘힘줄이 땅기고 살이 괴로운 증상이 있고’라는 뜻이다.

위의 편들이 五體로써의 筋에 대한 것이라면, 『靈樞經脈』, 『靈樞經筋』 등은 筋과 經絡 체계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편들이다.

#### ⑤ 분석 및 고찰

『說文解字』에서 “筋, 肉之力也. 从力从肉从竹. 竹, 物之多筋者(筋은 살의 힘줄이다. 力, 肉, 竹의 뜻을 따른다. 대나무는 사물 중에 힘줄이 가장 많은 것이다.)”라고 풀이한 바와 같이 근은 힘줄이며, 대나무를 언급한 것과 같이 식물의 섬유 또한 筋이라 칭한다. 현대 해부학 用語에서는 ‘인대’와 ‘힘줄’을 구분하기 때문에 ‘힘줄, 인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藏眞散於肝, 肝藏筋膜之氣也.”라고 하여 筋을 膜과 함께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筋과 膜은 함께 肝의 습이라고 볼 수 있다. 筋은 현대 해부학 用語의 tendon(힘줄, 腱)과 ligament(인대)를 모두 일컫는 말이고, 膜은 fascia(근막)이다. muscle은 현대 해부학 用語로 ‘근육,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分肉’이라는 말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筋과 肉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언급해 보자면, 皮膚 아래, 뼈 위에 걸쳐서 서로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깊이를 가지고 深淺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皮膚를 지난 단계에서 먼저 피하지방이 나오고 그다음 筋膜, 分肉, 다시 筋膜, 分肉 등이 반복되다가 血脈, 神經, 뼈 등에 이르게 되는데, 피부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肌肉이 더 바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4) 骨

##### ① 『說文解字』

“骨, 肉之覈也. 从冎有肉. 凡骨之屬皆从骨. 古忽切.”<sup>110)</sup>이라고 하였고 ‘覈’에 대하여 “實也. 考事,

兩笮邀遮, 其辭得實曰覈. 从兩敷聲. 覈或从兩. 下革切.”<sup>111)</sup>라고 하여, ‘살의 씨이다’라고 풀이하였다.

##### ② 『東亞漢韓大辭典』

골(骨)<sup>112)</sup>: 뼈 골. 1 뼈. ㉓ 근육 속에 있어 몸을 지탱하는 물질. 『素問論』 骨者, 髓之府. ㉔ 몸, 구간(軀幹). 『李賀詩』 病骨猶能在. ㉕ 심, 중심이 되는 것, 골수. 『杜甫詩』 讒日到骨. ㉖ 골격(骨格), 골상(骨相). 『曹唐詩』 逢人相骨強嘶號. ㉗ 해골, 측루(髑髏). 『晉書』 下無怨骨. 2 뒤편이, 풍도(風度), 사람의 품격. 『南史』 風骨奇偉. 3 굳다, 강직(剛直)하다. 『後漢書』 骨鯁可任. 4 글씨가 날카롭고 힘차다. 『中華大字典』 書之瘦勁曰骨. 5 문장의 체격(體格). 『文心雕龍』 沈吟鋪辭, 莫先於骨. 6 기골(氣骨). 의기(意氣). 『詩品』 眞骨凌霜. 7 신라 시대(新羅時代)의 골품 제도(骨品制度). ㉘ 眞骨·聖骨. 『唐書』 新羅名其王族爲第一骨, 餘貴族爲第二骨.

수(髓)<sup>113)</sup>: 골수 수. 1 골수, 뼈 속의 누른 즈액(汁液). 『漢書』 挾肌膚而藏骨髓. 2 물질의 중심에 있어 굳기름처럼 응고(凝固)된 것. 『晉書』 烈嘗得石髓如飴. 3 사물의 중심, 정화(精華), 추축(樞軸). 『李咸用詩』 筆下滴滴文章髓.

110) 說文解字注. 漢典. <http://www.zdic.net>. “肉之覈也. 西部而, 覈, 實也. 肉中骨曰覈. 蔡邕注典引曰, 肴覈, 食也. 肉曰肴, 骨曰覈. 周禮, 丘陵, 其植物宜覆物. 注云, 核物, 梅李之屬. 小雅, 穀核維旅. 箋云, 豆實菹醢也. 籩實有桃梅之屬. 按覈核古今字. 故周禮經文作覈注文作核, 古本皆如是. 詩穀核, 蔡邕所據魯詩作肴覈. 梅李謂之覈者, 亦肉中有骨也. 从冎, 有肉, 去肉爲冎, 在肉中爲骨. 古忽切. 十五部. 凡骨之屬皆从骨.”

111) 說文解字注. 漢典. <http://www.zdic.net>. “實也. 凡有骨之僞也. 骨下曰, 肉之覈也. 蔡邕注典引曰, 有骨曰覈. 周禮, 其植物曰覈物, 謂梅李之屬. 按詩小雅, 肴覈維旅. 典引及注不誤, 蜀都賦作福. 段借字也. 今本作核, 傳譌也. 周禮經作覈, 注文作核, 蓋漢人已用核爲覈矣. 攷事兩笮邀遮其辭得實曰覈. 兩者, 反覆之. 笮者, 迫之. 徵者, 巡也. 遮者, 遏也. 言攷事者, 定於一是. 必使其上下四方之辭皆不得逞, 而後得其實, 是謂覈, 此所謂咨於故實也. 所謂實事求是也. 从兩. 敷聲. 下革切. 古音當在二部.”

112) 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2114.

113) 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2118.

### ③ 『東洋醫學大辭典』

골(骨)<sup>114</sup> : 전신의 골격. 신(腎)은 골을 주재하고 수(髓)를 생하며 수(髓)를 뱃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골은 기항지부(奇恒之府)에 속한다. 『영추(靈樞)』 <경맥(經脈)>에서 「骨은 간(幹)이 된다.(骨爲幹.)」라고 하였다. 골의 성질은 굳세고 단단하며 형체를 지탱하여 몸의 버팀대가 되는데, 이러한 작용은 수(髓)의 자양에 힘입고 있으므로 정수(精髓)가 훼손(虧損)되어 골이 자양을 잃으면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걸을 때 진도증(振掉症)이 생긴다.

수(髓)<sup>115</sup> : 기항지부(奇恒之腑)의 하나. 골수와 척수를 말하며, 그것은 신(腎)의 정기(精氣)와 수곡정미(水穀精微)에서 화생(化生)되어 뼈를 충양(充養)시키고 뇌수를 보익(補益)하는 작용을 한다. 『소문(素問)』 <맥요정미론(脈要精微論)>에서 「骨은 수(髓)의 부(府)이다.(骨者, 髓之府.)」라고 하였고, 『소문(素問)』 <역조론(逆調論)>에서는 「신(腎)이 화생(化生)하지 않으면 수(髓)가 채워질 수 없다.(腎不生則髓不能滿.)」라고 하였으며, 『영추(靈樞)』 <오릉진액별론(五癆津液別論)>에서는 「오곡(五穀)의 정액(精液)이 화합(和合)하여 고(膏)가 된 것이 안으로 골공(骨空)에 스며 들어가『滲入』 뇌수(腦髓)를 보익(補益)한다.(五穀之精液和合而爲膏者, 內滲入于骨空, 補益腦髓.)」라고 하였다.

### ④ 『黃帝內經』의 용례

骨的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6</sup>. 『素問生氣通天論』에서 “是以聖人陳陰陽, 筋脈和同, 骨髓堅固, 氣血皆從.”, 『素問脈要精微論』에서 “骨者髓之府, 不能久立, 行則振掉, 骨將憊矣.”라고 한 내용은 ‘骨’과 ‘髓’의 생리를 함께 논한 것이다.

『素問五藏生成』에서 “心之合脈也, 其榮色也, 其主腎也.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其主心也. 肝之合筋

也, 其榮爪也, 其主肺也. 脾之合肉也, 其榮唇也, 其主肝也.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其主脾也.”,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藏眞下於腎, 腎藏骨髓之氣也.”, 『素問痿論』에서 “肺主身之皮毛, 心主身之血脈, 肝主身之筋膜, 脾主身之肌肉, 腎主身之骨髓.”라고 한 내용은骨과 腎의 合에 의한 생리와 그 의의를 논한 것들이다.

『靈樞經脈』에서는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이라 하여 骨의 용도를 ‘줄기, 기둥이 되다(幹)’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⑤ 분석 및 고찰

『靈樞經脈』의 “骨爲幹”의 표현을 따르면 骨은 몸의 기둥이며, 『說文解字』의 표현을 따르면 ‘살의 씨(骨, 肉之覈也)’라고 할 수 있다. 대략 뼈의 개념은 혼동될 여지가 거의 없다.

### 5) 脈

#### ① 『說文解字』 및 『康熙字典』

『說文解字』에는 脈에 대한 내용이 없고, 『康熙字典』에서 “脈, 『說文』血理分表行體者. 『玉篇』血理也. 『正字通』五臟六腑之氣分流四支也. 『釋名』脈, 幕也, 幕絡一體也.”라고 하였다. ‘脈’의 俗字인 ‘脉’을 『康熙字典』에서 “『正字通』俗脈字. 『韻會』毛氏曰, 字从月从. 今从永者, 誤也. 永, 古詠字. 反永爲. 音普拜切. 水之邪流也. 从, 取邪流義, 不當从永. 但相承已久, 不敢廢也.”라 하였다. 따라서 ‘을을 詠’의 『說文解字』 풀이를 찾아보면 “歌也. 从言永聲. 咏, 詠或从口. 爲命切.”이라 하였고, ‘노래 歌’는 다시 “詠也. 从欠哥聲. 譌, 譌或从言. 古俄切.”이라 풀이하였다. ‘永’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長也. 象水逕理之長. 『詩』曰, 江之永矣. 凡永之屬皆从永. 于憬切.”이라 풀이하였다<sup>117</sup>. 대략 『說文解字』나 『康熙字典』을 통해서 는 글자의 연원을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 ② 『東亞漢韓大辭典』

맥(脈)<sup>118</sup> : 맥 맥. 1 맥, 혈맥. 『薛勝·拔河賦』脈

11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1).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459.

11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5).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37.

1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6, 39, 57, 65, 1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79.

117) 說文解字, 康熙字典. 漢典. <http://www.zdic.net>.

脈憤而體如癭水. 2 수로(水路), 물길. 『韋應物詩』 側峭緣溝脈. 3 줄기, 연답, 잇닿음. ※ 사물이 관통 연락하여 계통을 이루는 것. 『珊瑚鈞詩話』 語脈新奇. 4 맥박. 『史記』 特以診脈爲名耳. 5 진맥하다, 맥을 짚다. 『史記』 至今天下言脈者, 由扁鵲也.

맥(脉)<sup>119)</sup>: 脈의 俗字.

### ③ 『東洋醫學大辭典』

맥(脉)<sup>120)</sup>: 1. 맥관(脈管), 기혈(氣血)이 운행하는 통로. <소문(素問)> <맥요정미론(脈要精微論)>에 「대저 脈은 혈(血)의 부(府)이다.(夫脈者, 血之府也)」라고 하였으며, <영추(靈樞)> <결기(決氣)>에서는 「영기(營氣)를 막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일러 脈이라 합니다.(壅滯營氣, 冷無所避, 是謂脈)」라고 하였다. 맥과 심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심기(心氣)에 의하여 움직인다. <소문(素問)> <위론(痿論)>에서는 「심(心)은 신체의 혈맥(血脈)을 주(主)한다.(心主身之血脈)」라고 하였다. 2. 맥박, 맥상(脈象). <영추(靈樞)> <사기장부병형(邪氣臟腑病形)>에서 「그 脈을 짚어서 그 병을 안다.(按其脈, 知其病)」라고 하였다. 3. 맥법(脈法). ㉔ 맥진(脈診), 절맥(切脈). 4. 오불녀(五不女)의 하나. 월경(月經)이 고르지 않거나 전혀 월경이 없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명나라 만전(萬全)이 편찬한 <광사기요(廣嗣紀要)> <맥배편(擇配篇)>에 나옴.

### ④ 『黃帝內經』의 용례

脈에 대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sup>121)</sup>. 『素問五藏生成』에서 “心之合脈也, 其榮色也, 其主腎也.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其主心也. 肝之合筋也, 其榮爪也, 其主肺也. 脾之合肉也, 其榮脣也, 其主肝也.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其主脾也.”,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藏眞通於心, 心藏血脈之氣也.”라고 한 것은 脈과 心の 습과 그 생리와 의의를 논한 것이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夫脈者血之府也, 長則氣治, 短則氣病, 數則煩心, 大則病進, 上盛則氣高, 下盛則氣脹, 代則氣衰, 細則氣少, 澹則心痛, 渾渾草至如湧泉, 病進而色弊, 絳絳其去如弦絶, 死.”라고 한 것은 脈의 기능을 논하면서 血의 곳집이라 하고 그에 따른 생리적·병리적 반응과 진단에 대하여 논하였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 “持鍼之道, 堅者爲寶, 正指直刺, 無鍼左右, 神在秋毫, 屬意病者, 審視血脈者, 刺之無殆. 方刺之時, 必在懸陽, 及與兩衛, 神屬勿去, 知病存亡. 血脈者, 在脛橫居, 視之獨澄, 切之獨堅.”, 『靈樞血絡論』에서 “岐伯曰, 血脈者, 盛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大者如筋, 則而瀉之萬全也, 故無失數矣, 失數而反, 各如其度.”, 『靈樞論疾診尺』에서 “診血脈者, 多赤多熱, 多青多痛, 多黑爲久痺.”라고 한 문장들은 血脈과 腧穴의 관계 및 血脈의 징험과 진단 및 血脈에 시술하는 치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靈樞經脈』에서는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이라 하여 脈의 용도를 ‘돌려 짓고 다스리다(營)’라고 표현하고 있다.

위의 문장들은 五體로써 표현된 脈이라고 할 수 있으며, 『素問皮部論』에서 “皮者, 脈之部也. 邪客於皮, 則腠理開, 開則邪入客於絡脈, 絡脈滿, 則注於經脈, 經脈滿, 則入舍於府藏也. 故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라고 한 내용이나 『靈樞經脈』 등에서의 脈은 五體로써의 脈과는 다르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⑤ 분석 및 고찰

脈은 어원도 의미도 난해한 글자이다. 『東亞漢韓大辭典』은 脈의 한글 뜻을 ‘맥’이라고 풀이하였고, 『說文解字』 및 『康熙字典』에서는 어원을 ‘음을 詠’이라 하였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 『康熙字典』의 풀이 중 “『釋名』脈, 幕也, 幕絡一體也(脈은 덮는 幕이다. 一體를 덮어 聯絡한다).”와 “『說文』血理分袤行體者(血을 다스려 身體에 나누어 흐르게 한다).”, “『玉篇』血理也(血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118)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466.

119)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461.

12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3).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84.

1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9, 57, 65, 19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 79, 192, 309.

한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脈이란 一身 뒤덮어 연락하여 血이 잘 흐르게 하는 器官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6) 皮, 肉, 筋, 骨, 脈 五體의 상호 관계

앞서 논한 『說文解字』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筋, 肉之力也.’라 하였고, ‘骨, 肉之巖也.’라고 하였으며, 皮膚의 膚와 脈은 모두 部首를 肉으로 삼고 있으니, 皮, 肉, 筋, 骨, 脈 가운데 肉과 관계가 없는 글자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이러한 글자의 연원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段玉裁가 『說文解字注』에서 “‘肉’은 새나 짐승의 고기를 말한다... 중략... ‘肉’을 부수자로 삼았으므로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사람의 신체에 관계되는 글자를 만들게 되면서 ‘肉’으로 편방을 썼으니 이는 또한 가차다. 사람의 살은 ‘肌’라 하고 짐승의 살은 ‘肉’이라 하는데 이는 분별한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옛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부위의 用語를 정할 때에, 肉을 기준으로 곁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혹은 肉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등으로써 기준을 삼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로 보건대 皮, 肉, 筋, 骨, 脈에 있어서 肉의 의미는 확고한 것이다.

그러나 五體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經絡 體系와의 오버랩(overlap)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素問皮部論』, 『靈樞經脈』, 『靈樞經筋』 등의 편들에서 皮·筋·肉·骨에 대한 경락 체계와의 오버랩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五體-經絡 오버랩의 중심에는 주지하다시피 ‘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 ‘肝, 木藏也(肝은 木을 간직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肺, 金藏也(肺는 金을 간직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腎, 水藏也(腎은 水를 간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脾, 土藏也(脾는 土를 간직하는 것이다).’라 하였는데, ‘人心, 土藏, 在身之中. 象形. 博士說以爲火藏(사람의 心은 土藏이다. 몸의 가운데에 있으며 象形字이다. 博士가 火藏이라고 설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였으니 『說文解字』가 성립되는 시기에는 脾土說과 心土說이 모두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五體의 상관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皮, 筋, 骨, 脈에 대한 肉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한 어떤 특정 물체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식물의 열매인데, 실제로 열매를 지칭하는 用語와 사람 또는 동물을 지칭하는 用語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皮·肉·筋 등의 用語는 신체 부위와 더불어 열매에 대한 用語에 그대로 통용되며, 核과 같은 경우도 위의 『說文解字』의 풀이에서 보듯이 骨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sup>122)</sup>. 이러한 유사성을 고려할 때 古代人들은 사람이나 동물 또한 일종의 열매로써 ‘코’라는 꼭지를 통해 하늘(天)이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sup>123)</sup>. 따라서 본 용어들이 韓醫學의 天人相應 思想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皮, 肉, 筋, 骨의 상관관계를 모식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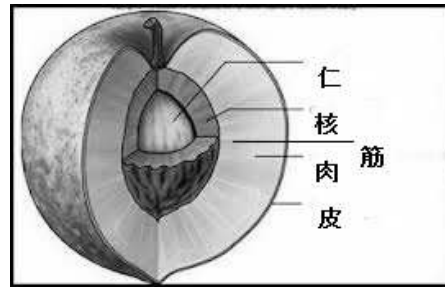


Fig. 2. Schematic view of Oche(五體) metaphor in vertical section of fruit.

## III. 考察 및 結論

본고는 『黃帝內經』 연구에 있어서 用語 定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

122) 核, 巖 등으로 보고 있다.

123) 김우석. 생명나무에 대한 연구. 삼육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 2007 : 宇宙樹 또는 世界樹 관념은 많은 고대 문명의 神話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상들은 天人相應論의 前身이라고 할 수 있다.

결해보고자 연구한 결과이다. 病名에 관련된 用語, 病症에 관련된 用語, 機轉에 관련된 用語 등 연구해야 할 분야는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체부위를 지칭하는 用語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국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肉’과 관련한 用語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고 더불어 五體에 대한 用語를 함께 개략적으로 살펴 五體의 상관관계를 함께 논하였다.

본론의 첫 부분에서는 『黃帝內經』에 ‘肉’이 사용된 用語 총 368례에 대하여 4가지 대분류로 나누어 『東洋醫學大辭典』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용례와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4가지 대분류는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표현, 병태 표현, 치료와 관련된 표현, 음식 등과 관련된 표현 등이며, 이 가운데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은 다시, 肉과 관련된 일반적인 구조물을 지칭하는 경우, 皮·脈·筋·骨 등 다른 구조물과 함께 표현된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기타 신체 부위 묘사 및 체형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등의 4 가지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肉과 관련된 일반적인 구조물을 지칭하는 경우의 用語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총 16가지의 用語<sup>124)</sup> 중에 定義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 12개의 用語<sup>125)</sup>를 선정하고 이를 고찰하였다. 특히 논란이 많은 分肉과 肌肉의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肉이 들어가는 用語에서 생기는 오해를 해소하고 『黃帝內經』의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행한 ‘肉’에 대한 고찰 결과를 토대로 皮, 肉, 脈, 筋, 骨의 五體의 상관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皮, 肉, 脈, 筋, 骨이라는 用語는 肉을 그 의미의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시 사람들의 인체 구성에 대한 관점을 유추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략적인 모식도를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중요한 개념들을 요약하여 보면 肉은 일반적인

124) 肉, 肌肉, 肉膜, 肉理, 大肉, 分肉, 肉節, 良肉, 白肉際, 肉盲, 肉脈, 膈肉, 膈肉, 肉有柱, 肉之柱, 肉分

125) 肌肉, 肉膜, 肉理, 分肉, 肉節, 肉盲, 肉脈, 膈肉, 膈肉, 肉有柱, 肉之柱, 肉分

‘살’이지만, 문자적으로는 ‘고기덩어리, 살코기’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하는 肌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肌肉은 ‘살로서 皮膚에서 뼈에 이르는 제반 조직, 지방층과 muscle을 포괄하되 筋髓 및 筋膜과 血脈 등은 제외한 부분, 肉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포함한다’라고 그 定義를 정립해 볼 수 있었다. 이 가운데 筋纖維가 뚜렷한 조직, muscle(현대 해부학 용어로 근육)이나 muscle belly(筋腹)와 같은 부위는, 肉의 결과 무늬가 뚜렷하게 나뉘는 것[分]을 볼 수 있기 때문에 肌肉의 이러한 부분만을 특별히 分肉이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筋과 肉은 실질 조직 속에서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筋과 肉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筋의 용례와 문자의 뜻을 따라보건대 ‘힘줄과 韌帶, tendon and ligament’로 定義할 수 있다. 또한 膜(현대 해부학 용어로 근막)은 筋과 더불어 肝과 흡이 된다.

기존의 연구 중에서 朴泰浩의 ‘人體部位別 名稱에 대한 東西醫學的 比較研究’에서는 筋을 tendon으로 규정하고 肉을 힘살 또는 flesh로 규정하고 있으나<sup>126)</sup> 다양한 문헌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고찰에서는 해부학적인 근육(muscle)을 한의학에서는 肌肉, 筋膜 등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근육의 근섬유에 의하여 일어나는 운동적 측면에서는 筋이라고 하고, 영양적 요소로 관찰할 때는 肉이라 하여,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함으로써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sup>127)</sup>. 또한 肉과 관련된 肌肉, 分肉 등의 주요 用語에 대해서도 각각 심층근육과 표층근육으로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다<sup>128)</sup>. 이러한 개념의 혼란은 이후의 관련 연구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왔다<sup>129)</sup>.

본고에서 五體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五體 가운데 脈은 血脈(blood vessel)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126) 朴泰浩. 人體部位別 名稱에 대한 東西醫學的 比較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3. p.76, 79.

127) 朴泰浩. 人體部位別 名稱에 대한 東西醫學的 比較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3. p.116.

128) 朴泰浩. 人體部位別 名稱에 대한 東西醫學的 比較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3. pp.79-81.

129) 孫旻成, 吳旼錫. 『黃帝內經素問』에 수록된 筋과 骨의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8. 7. p853.

며, 五體의 分界로 본다면 皮膚와 骨은 각각 境界가 명확하여 개념이 혼동될 여지는 거의 없다. 이러한 皮와 骨의 사이를 肉, 筋, 脈이 서로 뒤섞여 채우고 있는데, 그 中間의 공간을 채우는 조직 중에 筋膜, 血脈을 제외하면 모두 다 肌肉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된다.

학문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서 用語의 定義는 필수적이며, 그러한 用語의 定義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합의가 있어야 言語의 抽象性이 갖는 결함을 최소화하고 합의된 지식을 도출할 수 있다. 漢字는 상형문자에 속하며 그 회화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한 글자가 여러 가지 含意를 갖게 되었는데, 그 특성이 때로는 개념을 명료화 하는 데에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韓醫學이라는 學問에 있어서 漢字가 가지는 가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漢字가 가지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定義의 합의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현대 한의학의 用語의 定義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hakdaesajeon(1).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459, 552. pp.442-44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1).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459, 552. pp.442-443.
2.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hakdaesajeon(2).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55, 113, 117, 179, 218, 22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2).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5, 113, 117, 179, 218, 223.
3.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hakdaesajeon(3).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284. pp.247-24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3).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84. pp.247-248.
4.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hakdaesajeon(4).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259, 31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4).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59, 312.
5.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hakdaesajeon(5).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53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5).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37.
6.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hakdaesajeon(6).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94, 59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6).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94, 596.
7.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hakdaesajeon(8).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6, 13, 25, 32, 35, 3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6, 13, 25, 32, 35, 39.
8.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hakdaesajeon(10).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593, pp.598-59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10).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593, pp.598-599.
9.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 Committee ed. Dongyangulhakdaesajeon(11).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p.481, 505.
-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11).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481, 505.
10. Dong-ah publisher compilation committee of big Chinese to Korean dictionary. Dong-ah big Chinese to Korean dictionary. Seoul. Dong-ah publisher. 1985. p.1140, 1206, 1321, 1343, 1461, 1466, 1476, 1479, 1485, 2114, 2118. pp.1456-1458.
-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1140, 1206, 1321, 1343, 1461, 1466, 1476, 1479, 1485, 2114, 2118. pp.1456-1458.
11. Yeom Jungsam. Interpretation of Radical word of Seolmunhaejaju. Seoul. Publish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pp.175-176.
- 염정삼. 설문해자주부수지역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pp.175-176.
12.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 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p.11, 14, 16, 29, 39, 54, 57, 65, 89, 112, 149, 153, 163, 166, 176, 198, 297. pp.24-25, 189-190, 202-203.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 14, 16, 29, 39, 54, 57, 65, 89, 112, 149, 153, 163, 166, 176, 198, 297. pp.24-25, 189-190, 202-203.
13.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 Youngchu.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p.13, 40, 58, 63, 79, 83, 119, 124, 192, 210, 213, 215, 265, 298, 309, 331, 343, 345. pp.50-51, 178-179, 255-256.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 40, 58, 63, 79, 83, 119, 124, 192, 210, 213, 215, 265, 298, 309, 331, 343, 345. pp.50-51, 178-179, 255-256.
14. Zhangjiebin. Liejing. Beijing. Renminweichengchubanshe. 1994. p.66, 69, 88, 92, 224, 230, 258, 289, 391, 463, 505, 561, 564, 583, 692, 695, 735, 763, 769.
-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6, 69, 88, 92, 224, 230, 258, 289, 391, 463, 505, 561, 564, 583, 692, 695, 735, 763, 769.
15. Danboyuanjian. Lingshuzhi. Beijing. Renminweichengchubanshe. 1984. p.582, 584, 597, 749, 777, 812, 899.
-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582, 584, 597, 749, 777, 812, 899.
16. Qianchaochen. Huangdineijingtaisuxinjiaozheng. Beijing. Xueyuanchubanshe. 2006. p.46, 64, 70, 184, 208, 215, 444, 491, 650.
-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46, 64, 70, 184, 208, 215, 444, 491, 650.
17. Heo Jun. Dong-uibogam. Seoul. Beobin publishehr. 2012. p.797.
-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797.
18. Sang Won Yuk. A Study of the character Chi(臍)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4. 27(1). pp.89-98.
- 육상원. 『黃帝內經』의 “臍”字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1). pp.89-98.
19. Hyun A Shim, Ji Chung Song, Kyung Soo Keum, Dong Myung Eom. A Review on

- Meaning of “Fu(腑)” Character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1). pp.47-54.
- 심현아, 송지창, 금경수, 엄동명. 『黃帝內經』中 “腑”字 意味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3. 26(1). pp.47-54.
20. Kim Jeong-soo, Hwang Man-suk, Baek Jin-ung. A study on the examples of character ‘Yeong(營)’ and ‘Yeong(榮)’.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0. 23(2). pp.125-139.
- 김정수, 황만석, 백진웅. ‘營’字와 ‘榮’字의 用例 分析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2). pp.125-139.
21. Jung Doo-young. A Study of Classification in the Terms of 『Piweilun(脾胃論)』. Daegu Korean medical university. 2009.
- 정두영.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문장 성분 분석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2009.
22. Park Chan-young. A Systematic Study on Acupuncture & Moxibustion Terminology in <ZhenJiuJiaYiJing(鍼灸甲乙經)>. Daegu Korean medical university. 2013.
- 박찬영. <鍼灸甲乙經>의 古代醫學用語에 관한 系統的 研究-온톨로지(Ontology)를 이용하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2013.
23. Sin Jae-hyuk. A Study on Terminology of Effectiveness and Symptoms of disease in Meteria Medica.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0. 23(2). pp.107-118.
- 신재혁. 本草 效能 主治 用語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2). pp.107-118.
24. Kim Min-ge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Nominal Terms between 『Biwiron(脾胃論)』 and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0. 23(1). pp.59-79.
- 김민건. 小兒藥證直訣과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비교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1). pp.59-79.
25. Sin Sun-mi, Kang Goo, Baek Jin-ung. An English Translation and Terminology Study of 『Dongeuiseubowon · Discourse on Nature and Act』.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24(4). pp.69-101.
- 신선미, 강구, 백진웅. 『東醫壽世保元性命論』의 用語 定義 및 英譯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1. 24(4). pp.69-101.
26. Byung Wook Lee, Bum Sang Shim, Dong Myung Eom, The Study an the Combination of Management System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erms and Traditional Medical Classics Text Servic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4). pp.167-176.
- 이병욱, 심범상, 엄동명. 한의학 용어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고전원문 제공 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4). pp.167-176.
27. Sang-Kyun Kim, Hyun-Chul Jang, Sang-Jun Yea, Chul Kim, Mi-Young Song. An Online Terminology Dictiona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2012. 18(1). pp.45-52.
- 김상균, 장현철, 예상준, 김철, 송미영. 온라인 한의학 용어 사전 시스템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 18(1). pp.45-52.
28. Kim Kyungho. Review of modern medical terms-Focusing on the translation medical book. Journal of The Japanese

-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2004. 4. pp.9-12.
- 김경호. 근대 의학용어에 대한 고찰-번역 의 학서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 표대회논문집. 2004. 4. pp.9-12.
29. Park Tae-ho. A Comparative Study for Regional Terms of the Human Body i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Taejon University. 1993. p.116. pp.76-81.
- 박태호. 人體部位別 名稱에 대한 東西醫學의 比較研究. 대전대학교대학원. 1993. p.116. pp.76-81.
30. Son Minseong, Oh Minseok. A Literature Research on Muscle and Bone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The journal of Taejon Korean Medical Institute. 1998. 7. pp.853-863.
- 손민성, 오민석. 『黃帝內經素問』에 수록된 筋 과 骨의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 소논문집. 1998. 7. pp.853-863.
31. Kim Woosuk. Research on the tree of life. Samyook University dept of Graduate School of Theology. 2007.
- 김우석. 생명나무에 대한 연구. 삼육대학교신 학전문대학원. 2007.
32. JM Yan. Parsing between rouge meat, meat rouge, sub meat.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literature. 2004. 1. pp.16-18.
- 嚴健民. 胭肉, 肉胭, 分肉之間解析. 中醫文獻 雜誌. 2004. 1. pp.16-18.
33. WS Weng. Between the 『Huangdineijing (黃帝內經)』 points of meat and meat tempted points. Liaon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23(2). p.60.
- 翁文水. 試探『內經』分肉與分肉之間. Liaon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23(2). p.60.
34. DB Zhang, LJ Sun. The Meaning and Anatomical Knowledge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Journal of Henan TCM. 2006. 26(2). pp.1-5.
- 張登本, 孫理軍. 『黃帝內經』中的解剖學知識及 其意義. 河南中醫. 2006. 26(2). pp.1-5.
35. Hu-shin. Seoulmunhaeja(說文解字). Available from : <http://www.zdic.net>.
- 許慎, 說文解字. 주소 : <http://www.zdic.net>.
36. Naver jisikbaekgw. Available from : <http://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주소 : <http://terms.naver.com>.

